

사미;공간

도시의 이야기가 쌓이는 곳간같은 공간, 사이공간



이규빈

<나와 모두의 문화가게 - 사이공간> 아카이빙 워킹파트너, 주식회사 로컬피스 대표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애정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일상을 사는데 바빠서 집과 일터 외에는 애정은커녕 발자국도 남기지 못하기도 하지만, 분명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현대의 마음으로 반겨주는 곳,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곳. 일상의 틈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겐 필요하지요. 이 매거진은 그 모든 ‘곳’이 되어 주는 **사이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사이공간은 2023년 의정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나와 모두의 문화가게 - 사이공간’ 사업에 참여한 공간 스물세 곳을 문화공유공간으로써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문화도시 의정부 곳곳에서 시민과 도시 사이를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거점이자 통로가 됩니다.

<사이;공간>은 스물세 곳의 **사이공간** 주인장과 함께한 인터뷰를 통해 각 공간이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공간인지, 공간 주인장은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스물세 명의 주인장과 대화를 나누며 스물세 곳의 각각 고유한 지향점과 개성이 곧 문화공유공간 정체성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함께 돌봐주는 마음, 골목을 기점으로 주변 공간들과 톱톱 뭉치는 힘,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중요한 구심점, 문화 활동이 생업으로 확장되는 경험, 마을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주는 즐거운 사건들이 **사이공간**에 쌓이고 있습니다.

사이공간 이야기는, <사이;공간>을 읽은 여러분이 자신만의 공간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사이;공간> 매거진 속 공간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보고 싶은 공간을 정해 보거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이공간**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인지, 어떤 것을 쌓아 갈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공간에 대한 기대와 애정을 부풀리는 여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3 문화도시 의정부, 나와 모두의 문화가게 ‘사이공간’을 시작합니다.



이예담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나와 모두의 문화가게-사이공간> 담당

2022년 겨울, 의정부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주어진 5년간 우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정부 예술의전당’을 벗어나 의정부 전역에서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문화거점, 문화공유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작년에는 공간별 문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으로 ‘U+스팟 꼭!꼭!’이라는 사업을 시도했고,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관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모두의 문화가게 - 사이공간’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 공간을 통해 **시민, 공간, 지역**,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이’ 즉 ‘관계’를 만들어 내길 바랐습니다.

단순히 재밌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인연,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특별한 장소로 남을 수 있기를.

사이공간: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는 건축학 용어.

집, 회사, 상점...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공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이공간**을 지나치지만, 쉽사리 눈길을 준 적은 없습니다. 별다른 목적 없는 이곳에 애뜻함, 머물고 싶은 마음 따위를 가질 일은 더욱더 없죠. 그러나 **사이공간**은, 또 다른 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한정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어떤 색깔로도 자유롭게 채워질 수 있는 곳이죠. 그곳을 꽃으로 채운다면 꽃밭이 될 것이고, 미끄럼틀이 있다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며, 작은 나무와 편안한 의자를 둔다면,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평화로이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

가벼운 차림, 들뜬 마음으로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재밌는 공간,
생각만 해오던 재밌는 상상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공간.
그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이러한 **사이공간**을 통해 내가 사는 이곳,
의정부와 더 따뜻하게, 뜨겁게 얹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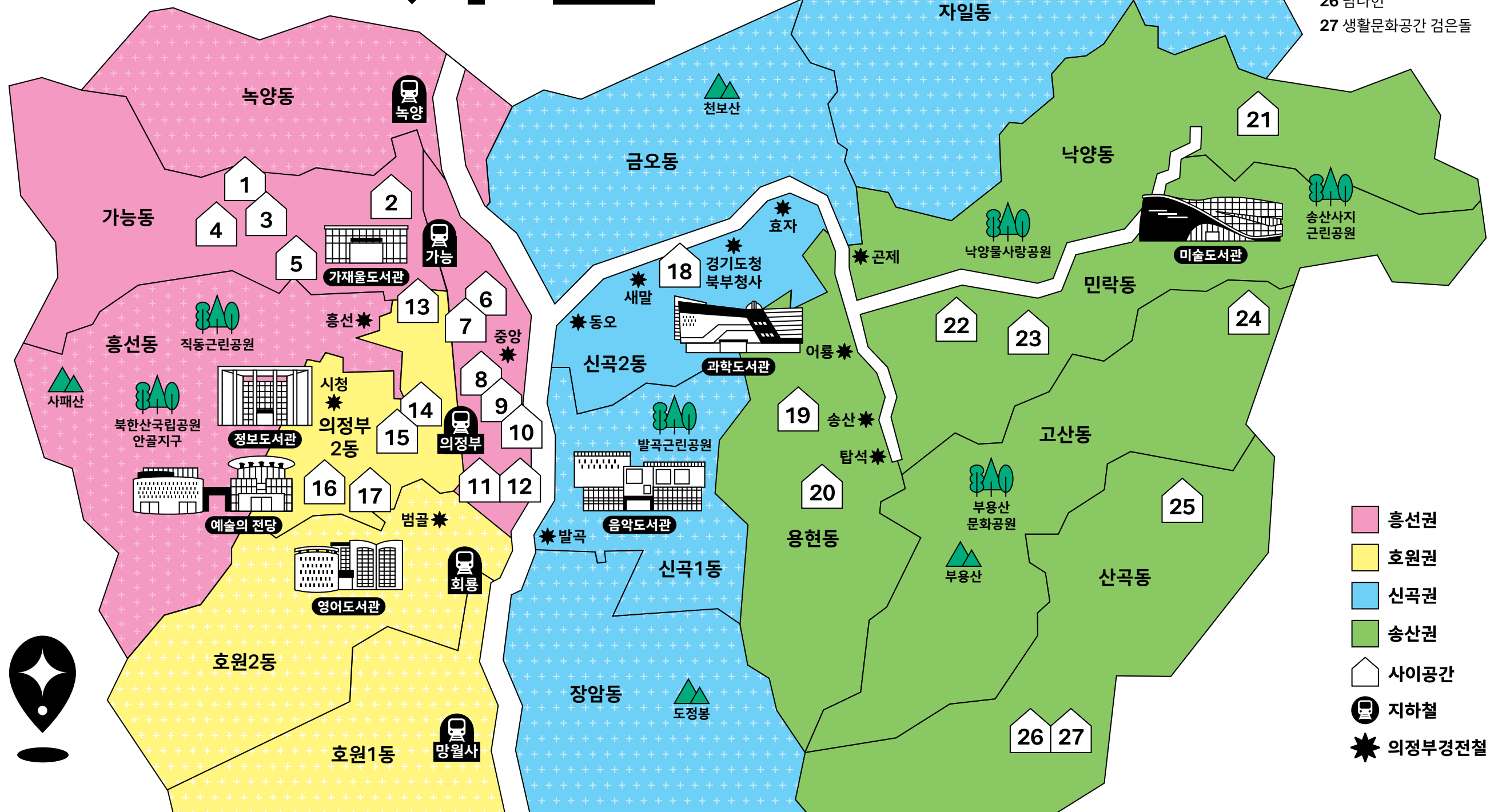
너와 나, 그리고 문화도시 의정부.
그 모든 ‘사이’를 만들고 연결하는 ‘공간’

그 공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사이공간**을 함께 환대하고 우리들의 색깔로 다채롭게 채워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사이공간 지도

Uijeongbu
SAIGONGGAN
MAP

- | | | | |
|---------------|-----------|-------------|-----------------|
| 1 안부, cafe | 6 보우 스튜디오 | 10 스크 | 16 윤갤러리 |
| 2 은타악 문화예술단 | 7 동아그림 | 11 의정부바이브 | 17 빛뜨레커피 |
| 3 누스 예술심리치료센터 | 8 뇌프 | 12 영희책방 | 18 스튜디오 떠오름 |
| 4 그림정원화실 | 9 위아올라운지 | 13 하굴공방 | 19 산야요가 |
| 5 우리동네협동조합 | | 14 살판마을극장 | 20 화차마루 |
| | | 15 의정부시 청년몰 | 21 반딧불이작은도서관 |
| | | | 22 아트볼 프로젝트 |
| | | | 23 웰니스메이트 |
| | | | 24 LH더휴(休)작은도서관 |
| | | | 25 봄별작은도서관 |
| | | | 26 담다헌 |
| | | | 27 생활문화공간 검은돌 |



목차

여는 글

- 도시의 이야기가 쌓이는 공간같은 공간, 사이공간 이규빈 로컬피스 . 4
- 2023 문화도시 의정부, 나와 모두의 문화가게 ‘사이공간’을 시작합니다. 이예남 문화도시지원센터 . 6

가능동

- 당신의 안부를 묻는다 안부, cafe . 14
- 누구나 문을 두드리고, 악기를 두드릴 수 있는 놀이터 은타악 문화예술단 . 20
- 편견없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스 예술심리치료센터 . 26
- 그림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는 힐링의 공간 그림정원화실 . 32
-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흥선마을 사랑방 우리동네협동조합 . 38

의정부1동

- 레인보우처럼, 다양한 색을 펼칠 수 있는 보우 스튜디오 . 46
- 팔레트처럼 무궁무진한 색을 담고 있는 공간 동아그림 . 52
- 문화와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뇌프 . 58
- 문턱을 넘어, 즐거운 마음으로 입장하도록 손잡아 주는 아지트 위아울라운지 . 64
- 온전한 자기만의 시간을 스르르 보낼 수 있는 공간 스르르 . 70
- 책과 사람의 놀이터 영화책방 . 76

의정부2동

- 사람들을 모으는 아지트가 되고 싶은 곳 하굴공방 . 84
- 살판나는 세상을 만드는 예술공동체 살판마을극장 . 90
- 일상과 마음을 움직이는 글과 그림의 힘 윤갤러리 . 96
-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나 열려있는 문화식물카페 빛뜨레커피 . 102

신곡2동

- 나의 색을 채워 넣으며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공간 스튜디오 떠오름 . 110

용현동

- 깊이 비우고 나의 무한함을 찾아가는 움직임 산야요가 . 118
-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정성 가득한 차 사랑방 화차마루 . 124

낙양동

-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끌벅적, 자유분방 공간 반딧불이작은도서관 . 132

민락동

-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 현대의 놀이 공간 웰니스메이트 . 140

고산동

- 동네 사람들의 손길과 발걸음으로 채워지고 있는 책 놀이터 LH더휴(休)작은도서관 .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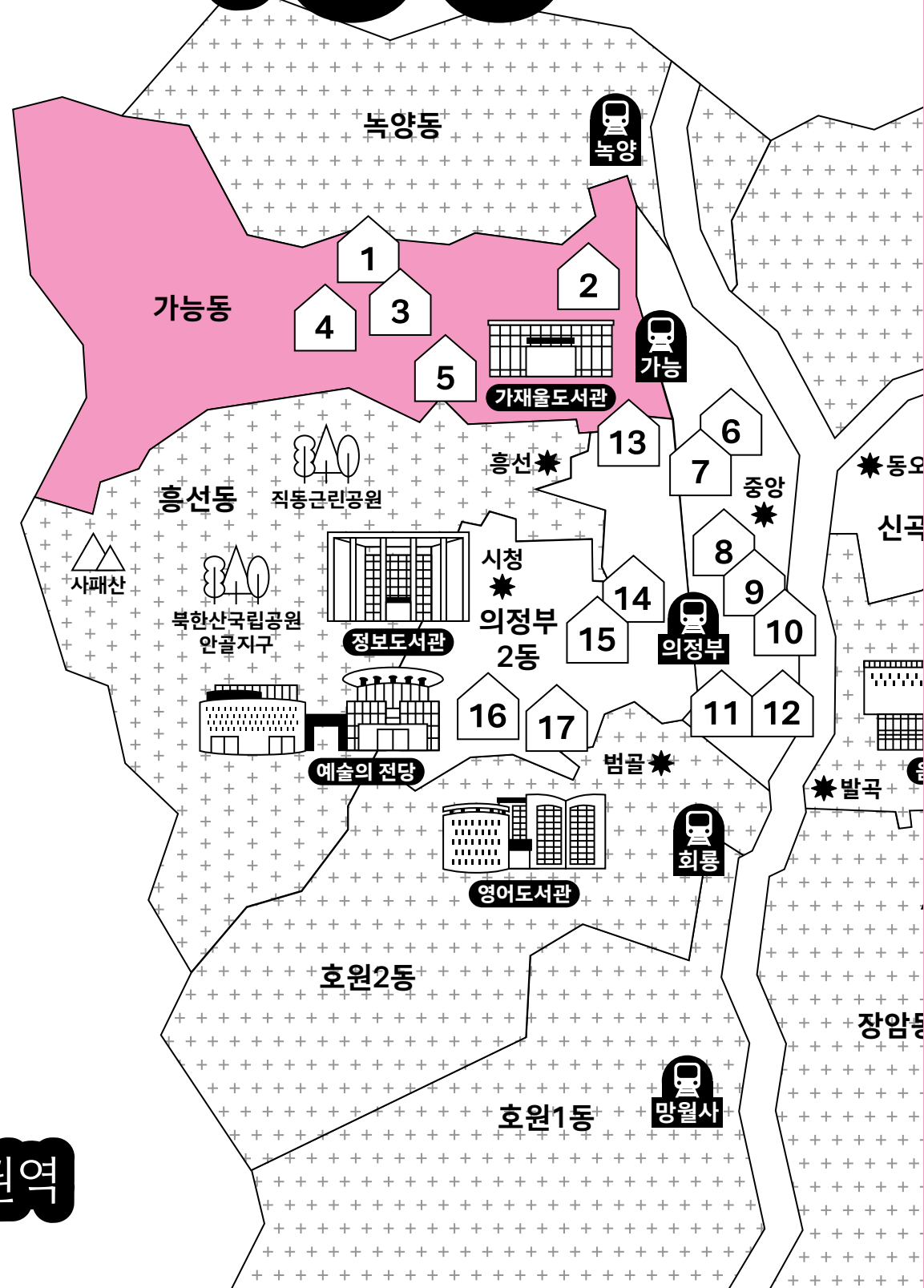
산곡동

- 놀이터 같고 사랑방 같은 도서관 봄별작은도서관 . 156
- 이웃과 식구에 대한 애정을 한식으로 피워내는 공간 담다헌 . 162

칼럼

- 당신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 - 관계 맺기와 장소성에 대하여 안은성 로컬사무소 공공공 . 170

가능동



학교가 많은 가능동 골목을 걷고 있으면, 근처 피아노 학원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연습곡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아이들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뛰어가는 모습, 떡꼬치나 떡볶이를 먹는 초등학생들로 분식집이 붐비는 모습, 친구와 문방구로 뛰어가는 모습도 정겹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웃음과 기쁨으로 일상을 채우는 동네 곳곳이 모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가능동의 <사이공간> 역시 동네의 놀이터이자 사랑방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상적인 공간들입니다. 누구나 와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악기를 함께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하고 정다운 공간들이지요. 가능동의 <사이공간>은 이웃들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사라져 가는 것들에 관심 두고 싶은 마음을 음악, 미술, 먹거리, 책으로 풀어냅니다. 가치가 공간을 지탱하는 단단한 공간들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는다.

#책

#공감

#소모임

1

안부, cafe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인사조차 하지 않던 이웃들. 어느새 서로 차가워지고 더 각지게 됐다. 그 각진 공간들 사이에 불쑥 안부를 묻는 곳이 있다. 가평동의 '안부, cafe'다.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이 적혀있는 작은 나무 간판이 마치 반가운 이웃처럼 공간을 찾는 이들을 환영한다.

이 공간의 이름엔 심표가 붙어있다.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심'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심표가 이 공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 독서 모임을 하다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이곳. 심터처럼 사람들이 대화하고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다.





하선진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부터 나만의 쉼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고, 직접적인 계기는 소규모 정기모임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마음이 매우 힘들었어요. 우연히 호동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매월 정기 독서 모임이 올해로 6년이 되어가네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모임 시간과 장소 선정 문제 등으로 불편함이 컸는데, 공간을 만들고 나니 모임회원 모두가 만족하며 편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가끔 비가 올 때 혼자 카페에서 좋아하는 음악과 책을 읽고 있으면, 나만의 공간에서 비로소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편하게 정기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은 분이나 쉼터를 찾는 분들과 이러한 느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쉼’과 ‘모임’이 공간을 꾸리시는 데 중요한 키워드였군요. 그 밖에도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오롯한 쉼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내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어요. 음악, 인테리어, 그림이나 소품들을 배치할 때 집처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더불어 정기독서 모임을 위한 단체석과 책장을 만드는 것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큰 테이블도 저한테 의미가 있는 공간이에요. 엄마 팔순 잔치를 여기서 했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다른 가족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어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 쓰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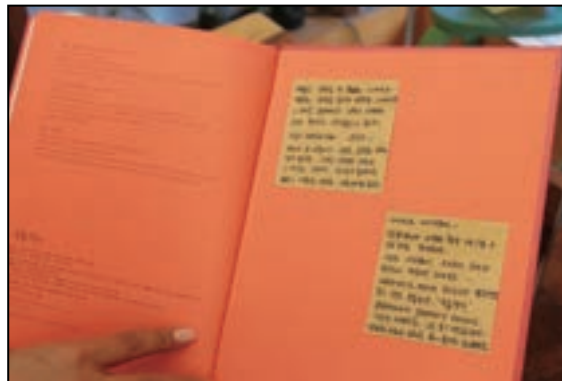
제가 이 공간을 다 조성했어요. 저는 이 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투명하지 않아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비로소 나만의 공간에 들어왔다는 편안함과 안정된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높은 천장과 나무, 흰색 바탕이 가지는 밝고 편안한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카페를 방문하신 분들 모두가 이런 분위기를 좋게 봐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능동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해요.

가장 신경 썼던 긴 원목테이블과 책상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나무 간판은 ‘안부를 묻다. 오늘 당신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제 마음을 썼어요. ‘여기 커피집이에요’ 하고 써 붙이는 것보다는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커피를 파는 곳이지만 또 저녁에는 병맥주도 마실 수도 있어요. 가족분들 오시면 아빠는 병맥주 드시고 딸은 음료 마시고 엄마는 커피 마시고 하세요. 제가 바라던 모습이었어요.



공간을 운영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사이공간>을 처음 접했을 때 무척이나 기쁘고 반가웠어요. ‘우리 동네 문화가게’가 되기 위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적 도움이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 카페처럼 작은 공간들도 이웃들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이공간> 같은 사업이 이후에도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단순히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공간을 매개로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공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주변 직장인들, 가족 또는 친구 모임, 연인, 혼자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이웃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공간이 되고 있어요.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세요. 대가족이 올 공간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간을 좋아하세요. 오시면 식구들끼리 큰 테이블에 다 앉으세요. 그러면 되게 흐뭇해요. 왜냐면 저희도 식구가 한 번 모이면 10명이 넘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가게 이름 너무 예뻐요.”, “편해서 너무 좋아요.” 해주세요.

안부, cafe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안부, cafe'를 어떻게 확장하고
싶으신가요?

현재 정기적인 독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정한 우리 동네 문화가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사이공간>의 참여 주제는 '안부,를 묻다'로 정했어요. '쉽 있는 공간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대화'를 핵심 가치로 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계획했어요. 마음 치유, 그림책 미술치료, 동화책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이 있어요. 이후에는 다양한 정기 문화 행사와 문화단체 대관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문화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요.



이웃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일어나는 거점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하시는군요. 공간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특성상 소규모 전시회, 작은 음악회, 소규모 창작세미나, 작가와의 만남, 정기독서 모임, 미니 강좌, 동아리 등 문화 활동에 적합해요.

나와 공간을 단어로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책과 함께 쉬어갈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 쉽표, 안부'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터뷰이 하선진
인터뷰어 글 사진 김예겸
편집 박예은 이규빈



“준비된 실력은 없는데 테두리를 짰으니,
그다음엔 채워야 하는 거지요.”

성파,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샘터, 2023

무모한 도전으로 <사이공간>의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의 도움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과 함께 공간을 채우고 싶습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편안히 공간도 즐기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주인장 하선진

은타악 문화예술단



‘은타악 문화예술단’은 의정부시 가평동에 위치한 타악 퍼포먼스 전문예술단체다.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려하고 강인해 보이는 타악기가 진열된 한 편, 단원들끼리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붙어 있다. 단원들이 연습이 없는 시간에도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나눠 먹는 오순도순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은아 주인장은 “누구에게나 놀이터가 필요하고, ‘은타악 문화예술단’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은타악 문화예술단’에서는 누구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응원하고 용기를 주는 과정을 통해 동료이자 좋은 이웃이 되어간다.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간을 열기 전에는 강의랑 공연 등 외부 활동을 위주로 했어요. 가능동에서도 주민자치 수업을 하며 이 동네에서 활동하면서 보니, 자연스레 거점을 이곳에 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또, 이쪽에 타악을 위주로 하는 형태의 예술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저의 연습 공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술 활동은 2008년부터 했어요. 처음엔 의정부에서 시작했다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로 활동지를 옮겼었고요. 2019년에 다시 의정부에 왔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타악을 교육이나 공연을 통해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연습을 계속해야 했고, 연습 공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정부에 공간을 열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공간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잘하는 걸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타악 교육, 공연을 통해서 제 바람이 실현되고 있어요.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주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공연하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공연하는 우리 회원들도 굉장히 신나 하시고요. '은타악 문화 예술단' 회원들은 주로 중년 여성인데, 뭔가를 배우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배운 것을 연습해서 함께 공연도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에 정말 큰 동력과 에너지를 얻고 계세요. 타악 공연을 보는 분들, 타악 공연하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타악을 중심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오셔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수업 때 배운 것을 연습하곤 하는데요. 그건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년이 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남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에는 가족 외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확 줄었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선 어쩔 수 없이 다 함께 연습을 해야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합을 맞춰야 하니 타협과 양보를 해야만 하죠.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소통과 관계 맺음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공간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방문하시나요?

50대부터 70대까지, 중년 분들이 많이 오세요. 타악이 중년 분들에게 좋은 운동이 되거든요. 거치대를 사용해서 장구나 북을 키 높이에 맞춰 두고 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신체 단련을 할 수 있어요. 와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운동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신체 단련 뿐만 아니라 정신 단련도 된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그리고 함께 연습을 하다 보니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도 물론 환영입니다. 앞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관계 맺음에도, 공간 운영에도 신경을 쏟고 계신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런저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공간에 오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것, 공간을 지켜야 하니까 자유롭게 다니며 활동하는 게 어려운 것... 특히 코로나 때 힘들었죠. 공간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면 공간을 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의정부에서 열리는 축제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에서 열리는 축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타 지역의 예술 공연 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다 저희가 가져 가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공연과 공연 사이의 틈새나 연결 고리가 되는 무대를 의정부의 문화 예술단이 꾸밀 수 있다면 정말 좋죠.

**주인장님은 많은 공연 경험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신가요?**

한 달에 한 번 재능기부로 가서 하는 공연들이 생각이 나네요. 타악 공연도 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도 활용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갈 때 아쉬워하실 정도로 정말 좋아하세요.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공간에서 열심히 연습을 한 보람이 있다는 걸 느껴요. 또, 저희가 준비하는 타악 공연이 대중성도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럼 공간에서는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공간엔 거울과 음향 시설이 있으니까, 댄스, 발레, 연극, 노래 연습실로 활용할 수 있지요. 공연 예술하는 분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또, 생일 파티 공간도 됩니다. 조명이나 음향에 간단한 공연까지 가능하니 파티나 잔치를 기획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인장님이 공간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해요.**

악기들이죠. 악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악기를 보면 마음이 설레어서 한번 만져보고 싶고, 두드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악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조금씩 모아서 늘어나는 게 보일 때, 부자 된 기분이지요. 보통 예술 단체의 연습실은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습해요. 악기는 습한 환경에 취약한데 말이죠. 여긴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습하더라고요.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악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습기도 강하게 틀어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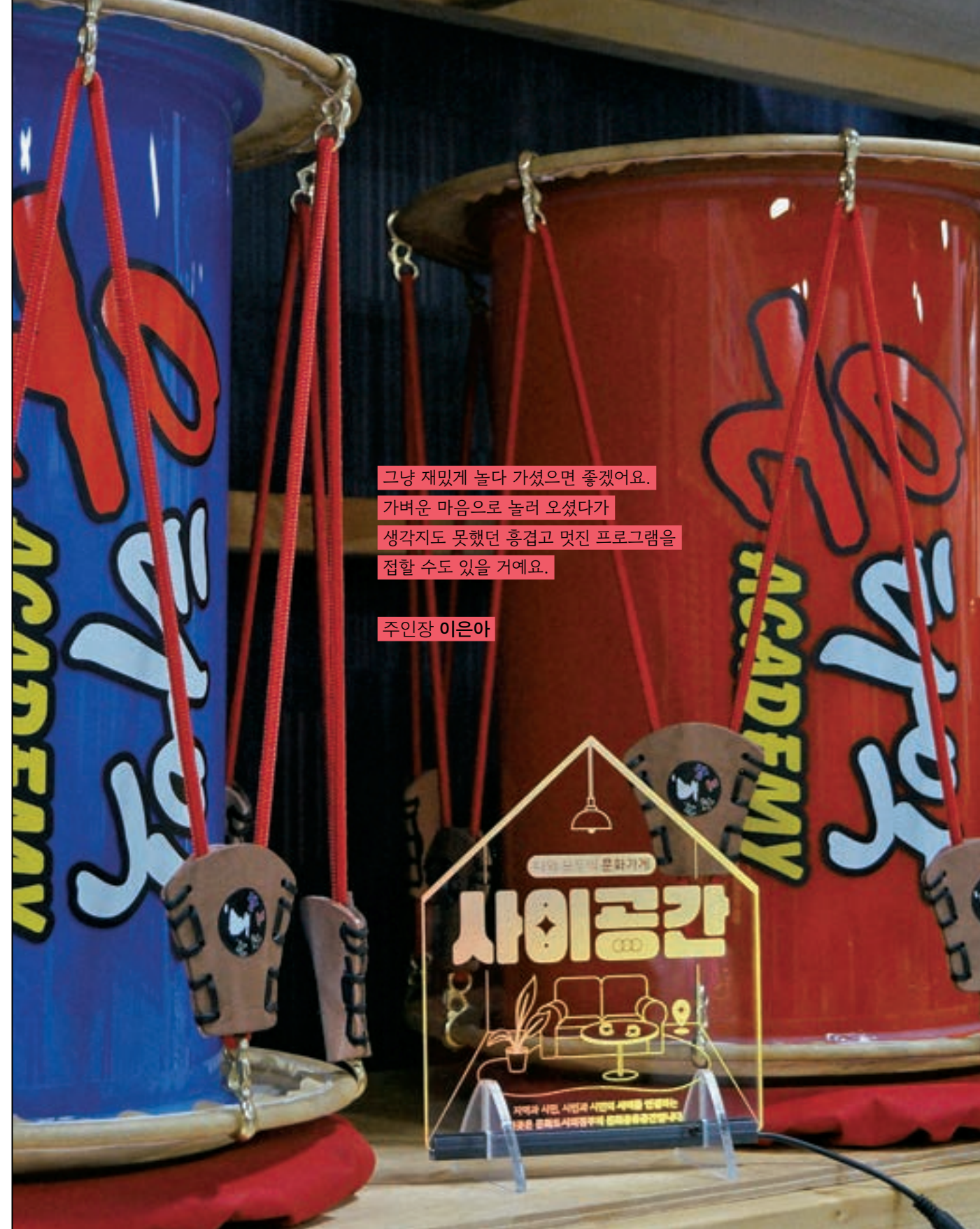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과 공연도 계속해 나가고, 공간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 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홍보가 잘 안되더라고요.

<사이공간> 사업이 참 좋은데, 직접 기획하며 생기는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 중 하나가 공간 홍보에 대한 어려움이예요. <사이공간> 프로젝트로 기획한 ‘쭈뼌 댄스 프로그램’도 참가자 모집이 어려워요. 가장 대중적인 걸 골라서 했는데도요.

**나와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두드림’, 어쨌든 ‘은타악 문화예술단’은 타악을 하는 공간이에요. 뭐든지 두드리는 공간이고요. ‘놀이터’, 누구에게나 놀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중년에게도 놀이터가 필요해요. ‘은타악 문화예술단’이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눔’, 나의 재능을 나누고, 사람 간의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니까요.

인터뷰이 이은아
인터뷰어 글 사진 이규빈
편집 박예은 이규빈



그냥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오셨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흥겹고 멋진 프로그램을
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인장 이은아

누스 예술심리치료센터



가능동에 위치한 '누스 예술심리치료센터'는 아동, 청소년, 미취학 아이들부터 청년, 성인, 노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서적인 상처의 치유를 돕고 예술치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발달, 정서, 심리, 청년, 노인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기관이나 지역과도 연계하여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심리상담 분야가 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임은 물론, 방문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상을 보낼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음악치료를 담당하는 한수진 실무자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편안하고 즐거운 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힘이 된다고 믿는다. '누스 예술심리치료센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공간의 방향을 '치료'에만 두지 않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수진 작가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스 예술심리치료센터’를 연 김선경 소장님은 의정부에서 심리치료사로 활동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의정부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 하겠다 싶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셨다고 해요. 치료사로서 이 지역에 심리적인 지지 공간을 만들고 싶으셨대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을 더 건강 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말마다 가족음악회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물론, 음악회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이 시간을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기고 싶어요. 또, 저희 공간은 편안함과 성취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방문 해 주시는 분들의 물리적 안전, 심리적 안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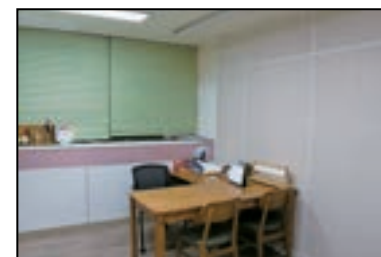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가지는 경험까지 중요하게 신경 쓰고 계시는군요. 그럼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공간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모든 공간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일하는 음악 치료 공간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재미 있고 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뭐든지 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창고도 좋아해요. 미술 치료를 위한 도구들이 있는 창고인데, 그곳에 가면 온갖 재미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공간을 운영하며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원의 부족함이죠. 아이는 계속 발달 하잖아요. 크면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해결하는 과제가 달라요. 그럼에도 보통의 지원은 1년, 아니면 2년이거든요. 아이는 커가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데, 지원 기간이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질병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노인 분과 음악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료 공간이라는 곳 자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치료센터라고 하면 아파서 오는 곳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뭔가 문제가 발견 되면 빨리 오세요. 그런데 청년, 성인, 노인들은 쉽게 오시지를 않거든요. 누구나 심리,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치료센터’라고 하면 확실히 아파야지만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고 느껴져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확장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가 활동으로 음악치료를 알리고 싶어요. 어디가 꼭 아프지 않더라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서요. 치료가 사실 테라피의 의미도 있거든요. 의료적인 것뿐만이 아닌데 한국에서의 치료는 어려움이 개선되는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삶의 질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과 마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감명받고, 성장했던 경험이 있어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내담자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치료를 진행할 때 부모 상담도 신경을 써요. 아이들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다뤄지지 않으면 아이들의 근본적인 문제 또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변화를 같이 느낄 때 좀 더 만족감을 느껴요. ‘더 공부해야겠구나!’ 느끼기도 하고요. 내담자를 넘어서 그들의 구성원들이 같이 변화하고 노력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간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반에는 치료사들끼리 모임도 했어요. 개인적,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나누는 워크숍도 했어요. 공간이 규모가 작아서 대규모 문화 활동은 어려울 것 같지만 소모임처럼 작은 규모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뜨개질 모임이나, 엄마들 모임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은퇴한 남성분들의 모임도 좋겠다 싶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게 <사이공간> 덕분인 것 같아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누스 예술심리치료센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사이공간>을 통해서 많은 분이 오셨으면 해요. 지금 <사이공간> 사업을 통해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려움을 나누고, 학생들의 문제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해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문제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정감, 바라봄, 심리적 기둥'이요. 이 세 단어가 '누스'의 바라본다는 의미를 나열한 것인데요. 치료사로서 제가 원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제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함께 가는 사람이자 공간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이 한수진
인터뷰어 글 김우락
사진 김우락 박예은
편집 박예은 이규빈



치료센터이기 때문에 갖는 편견이 있거든요. 저는 의정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에게 놀러 오시라고 말하고 싶고요. 편견을 가지지 않아도 좋고, 웰컴, 컴온!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을 여러 방향으로 준비해볼테니까, 많이 와 주세요.

실무자 한수진

그림정원화실



고즈넉한 흥선동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것만 같은 주택가가 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방앗간과 다림질 소리가 들리는 빨래방,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 미용실까지. 그사이에 퍼즐을 맞춘 듯 딱 맞게 자리 잡은 ‘그림정원화실’을 소개한다.

‘그림정원화실’은 이름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다. 그림에는 정답이 없고 수준이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지혜 주인장의 가치관을 따라 그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곳. 여기저기에 걸려 있는 그림들 덕이었을까? 그림정원화실의 공간이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다. 흥선동의 매력적인 풍경들이 사라지기 전에 더 많은 그림을 그려 남겨두고 싶다는 주인장은 본인이 생각해도 스스로가 그림만 그리는 그림쟁이 같다고 말한다. 그림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가 운영하는 그림정원화실의 이야기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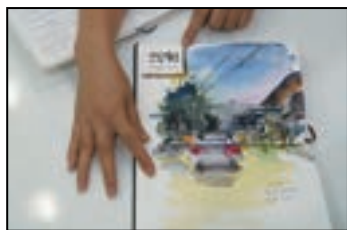


정지혜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선동은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웃들과도 친해요. 여기가 주택가라서 화실이 거의 없는데, 군데군데 보면 그림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실을 운영하기도 해요. 작업실을 알아보다가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된 건데, 공간을 꾸며놓고 나니 생각보다 환하고 편안하더라고요.

또, 제가 공간 밖에 그림을 걸어놓아요. 지나가시는 분들 감상하시라고 걸어두거든요. 이웃들이 구경도 하시고, 가끔 들어 오셔서 둘러 보고 가시고, 밖에 걸어둔 그림이 바뀌었으면 ‘그림 바뀌었네’하고 인사처럼 말 걸어주시기도 해요. 그런 게 좋아서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곳은 막혀 있고 이웃 간의 소통이 거의 없기도 하잖아요.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작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공간을 조성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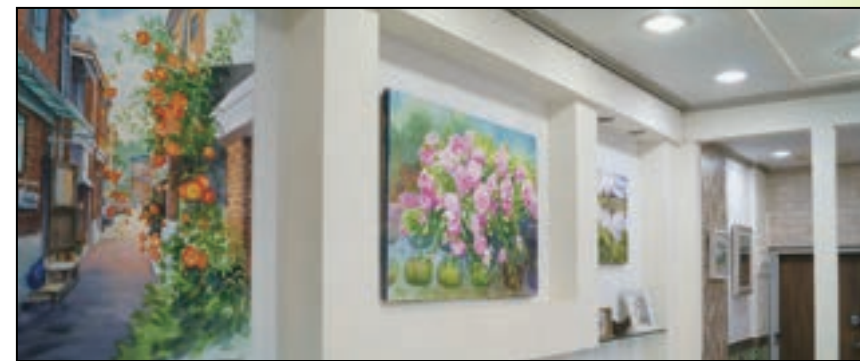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간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림은 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도 주고 마음의 여유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편하게 오셔서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수채화부터 시작하고, 조금씩 자신과 맞는 기법이나 취향을 찾아가는 걸 보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화가, 아마추어를 떠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그릴 수 있는 게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유리창에 작게 전시 공간을 해놨거든요. 그림을 걸어놓을 수 있게요. 항상 그림을 바꿔서 걸어 놔요. 이웃들도 ‘목욕탕 가는 길인데 화실이 있네, 그림이 있네.’ 하면서 지나다니다 한 번씩 볼 수 있고요. 올해 겨울에 전시하면서, 전시장에 찾아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림이 따뜻해서 좋다’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서 그림 걸어 놓는 걸 좋아해요.

여기 있는 그림들의 배경이 된 곳은 홍선동인가요?

맞아요. 홍선동의 좁은 골목을 그렸어요. 경로당, 안골, 가능초등학교 앞을 그린 그림들도 있어요. 라일락도 의정부 시청에서 오는 길에 보인 것들이고, 다 동네의 장면들이네요.



공간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을 마주할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 큰 소리가 나면 그림 그리는 분들이 놀라실 때도 있어요. 주변 환경이 조금 시끌벅적하고요. 운영비 관련 어려움도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공간 운영에 보태고 있는데, 그런 지원이 끊겼을 경우 제가 다른 곳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제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었다면, 수강생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지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작품 작업을 하자는 생각으로 공간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작업하기엔 최적의 조건이에요. 공간 운영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기대로 버티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들이 따라온다고 하죠. 기억에 남는 일화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연세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 좀 젊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굴에 활기가 도시고요. 이 동네에서 싸움이 크게 났던 때가 있었어요. 서로 고소하겠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로 싸우다 보니 이웃들도

지치고, 싸우는 당사자들도 지친 거죠. 그때 싸웠던 분들이 오셔서 그림을 한 번 그리셨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이웃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힐링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기뻐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그림을 시작하신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신곡동 중랑천 근처에서 공간을 운영하시는 주인장 아주머니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그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공간에 갔더니 본인 작품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내 공간에서 그림을 그려봐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공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도전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새로운 걸 배워 보겠다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요. 그제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드로잉 북을 드리고 3주 안에 채워오기 미션을 드리면 각자 열심히 채워 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림을 그려서 에코백에 인쇄해서 팔아보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다들 흔쾌히 해보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열정을 느껴요.

어른들이 그림을 그리러 오는 건 일상에서 벗어나 보고 싶다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진 분들과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좋아요.

그림을 매개로 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또,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각자 드로잉 북을 채우는 식으로요. 다음에는 의정부 어반 스케치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림 동아리처럼요. 어반 스케치라는 게 웅장하고 거대한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간 곳,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스케치하는 거예요. 의정부에도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흥선동의 옛날 주택들, 군데군데 리모델링해 놓은 흔적이나, 백석전 산책로 등 의정부 곳곳에 숨겨진 장소가 되게 많아요. 스케치를 하면서 흥선동의 골목과 의정부의 여러 풍경을 그리고 이 동네의 매력을 더 잘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재개발 이슈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장소들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 두고 싶어요.

또, 이 공간이 그림 그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림만 계속 그리면 힘들거든요. 쉬고 싶을 땐 시를 읽고 나누는 시 모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림을 통해, 도시에도 더욱 애정을 가지게 되신 거네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수채화 체험 공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드로잉 해 놓은 것을 저장해 두고, 수채 패드에 인쇄해서 언제 오셔도 바로바로 채색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여기는 조금 협소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모이고, 가족과 함께 오고, 친구들과 함께 오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랑방'이에요.大門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는 방이 사랑방이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야깃거리나 할 거리를 펼쳐놓고 하면서 놀다 가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그림쟁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림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할 일 안 하고 그림만 그린다고요. 저 스스로도 그림쟁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디저트'요. 그림은 어떻게 보면 디저트 같아요. 있으면 훨씬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잖아요.

인터뷰이 정지혜
인터뷰어 글 최예원
사진 이규빈
편집 박예은 이규빈



우리동네협동조합



흥선마을에서 구수한 떡 찌는 향을 따라 건다 보면 골목 모퉁이에 있는 떡집을 찾을 수 있다. 배달 앱 '짬' 2,500개를 달성한 떡 맛집인 이곳은 2015년부터 의정부시 흥선마을에 자리를 잡은 '우리동네협동조합'의 공간인 '우리가치떡'이다. 친환경 농업과 안전한 전통 먹거리 문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네 주민들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매개로 연대한다.

최혜영 주인장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웃들의 연대가 만들어 내는 힘을 알고 있고, 운영의 어려움과 딜레마 속에서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우리가치떡' 공간뿐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모임방과 전통 식문화 확산을 위한 공유 부엌이 '우리동네협동조합'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다.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을 운동의 구심점이 이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마을기업 공간을 열게 된 거죠. 2011년쯤, 경기도 전역이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뉴타운이란 원래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던 건물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싹쓸이 재개발이거든요. 의정부에서도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크게 조직됐고,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의정부 중에서도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가장 잘 조직된 곳이 흥선마을이었어요.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뉴타운 구역이 해제된 후부터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어요. ‘우리동네협동조합’ 공간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사무실이었어요. 바로 옆에 동네 경로당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 모임이 아주 지속적이었고 활발했어요. 마을 기업을 만들만 한 기반이 탄탄하게 된 거죠. 그런 기반을 믿고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 기업을 열게 됐어요. 방앗간과 떡집이 그 시작이었죠.

공간을 열고 마을 주민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뉴타운 반대 운동을 같이하던 어른들이 오셔서 송편도 만들어 주고, 청소도 해주셨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떡집만 하고 있었고,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주민들 누구나 편하게 와서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사랑방 공간을 아예 카페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연천에 친환경 무농약으로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재배한 친환경 쌀을 마을에서 조금씩 공동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좋은 로컬 푸드 있으면 공동구매 하는 사업들을 했죠.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우리가치떡’에서 만드는 떡의 재료를 친환경 쌀과 농산물들로 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에는 먹거리 나눔 사업 같은 활동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자는 가치를 확산했어요.

또 하나는, 이 공간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길 바랐어요. 이곳에서 쪽 해왔던 마을 활동을 이어갈 기반이 될 장소가 필요했어요. 최근에는 주민들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접 주민협의체를 꾸리고 계획을 짜서 총회도 하고, 마을 곳곳을 수리, 보완하고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죠. ‘우리동네협동조합’ 목영대 대표가 주민협의체 대표를 했어요. 주민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식으로 풀어낸 거죠.

마을 운동에서 시작해 공간의 설립까지 이어지는 가치가 마침내 공간의 철학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운영 철학은 협동조합 정신이죠. 말하자면 공동으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동네협동조합’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업을 지키는 가치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치떡’의 의미가 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식품을 돈벌이로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사업체지만,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어요. 특히나 취약 계층은 인스턴트나 냉동식품을 많이 먹게 돼요. 독거노인들도 음식을 직접 해 먹질 못하니 영양이 불균형하고요. 그래서 나눔을 할 때도 가능한 지역 농산물들로 만든 김치나 전을 나누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땀 먹거리 기본권이 굉장히 취약해졌기 때문에 먹거리 나눔이 꼭 필요했어요. 먹거리 기본권은 누구나 가져야 하는 소중한 권리인데, 안타깝죠.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인 먹거리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먹거리를 매개로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는 거예요.



주인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정신이 적혀 있는 발을 걸어둔 부분과 이 공간 일대에서 열렸던 골목 장터에서 찍은 사진이요. ‘우리가치떡’ 공간을 오픈했을 때,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골목에서 장터를 열었어요. 연천에서 친환경 쌀농사 짓는 분들도 오시고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모두 잘 나왔어요. 골목 장터로 농업, 식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지역에서 펼쳐가자는 의기투합도 했었고요.

운영의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공간 운영비죠. <사이공간> 사업에 참여한 많은 공간이 재정문제로 어려울 거예요. 공간을 지속하려면 수익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급여도 나가야 하니 어렵긴 해요. 좋은 취지로 공간을 거점 삼아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공공성을 띤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다 보니 장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또, 협동조합이 너무 이윤추구만 하면 협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협동조합은 결사체, 기업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동체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는 거고, 기업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간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공동체성과 기업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숙제네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사회운동을 계속하면서도 먹고 살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사업체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초반에는 장사와 공동체 활동을 전력으로 하다 보니 거의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1년, 2년을 일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노동할 수 있다는 걸 절감했죠.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텐데, 특별히 기억이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초창기가 복잡복잡하고 재밌었어요. 골목 장터 하면서 모여서 놀 때 ‘살판마을극장’에서 와서 악기도 흥겹게 두드려 주고요.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견학 오기도 했어요. 근처의 한 학교에서 벼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어요. 직접 농사지는 쌀을 가져와서 떡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시 가져가서 전교생이 나눠 먹었대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학교랑 연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참 좋아요.

공간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치떡’ 카페는 퀼트나 뜨개, 조그만 화분 만들기 등 공예 워크숍 하기에 딱 좋아요. 이 공간은 카페이기도 하고, 사업장이기도 하니 소소한 모임을 생각하고 있고, 아직 공사 중인 ‘공유 부엌*’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 인터뷰 일자로부터 한 달 후인 2023년 10월, ‘공유 부엌’ 공사가 완료되었다. (편집자 주)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우리동네협동조합’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전통 식문화를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밥을 좀 해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식문화가 위기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조리하는 법’을 너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도 있어요. 텃밭을 활용한 간단한 농법과 조리법을 가르쳐서 1인 가구도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철 식재료로는 무엇이 맛있고, 쉽게 밥을 해 먹을 방법은 무엇인지 다른 곳이 아닌 ‘마을’에서 알려주고 싶어요.

<사이공간>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은 의미가 굉장히 크니까요. 공간이 있어야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동네협동조합’은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알리고 지역과 먹거리를 나누는 곳이니, 그런 것을 계속 촉발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최혜영

인터뷰어 글 사진 이규빈

편집 박예은 이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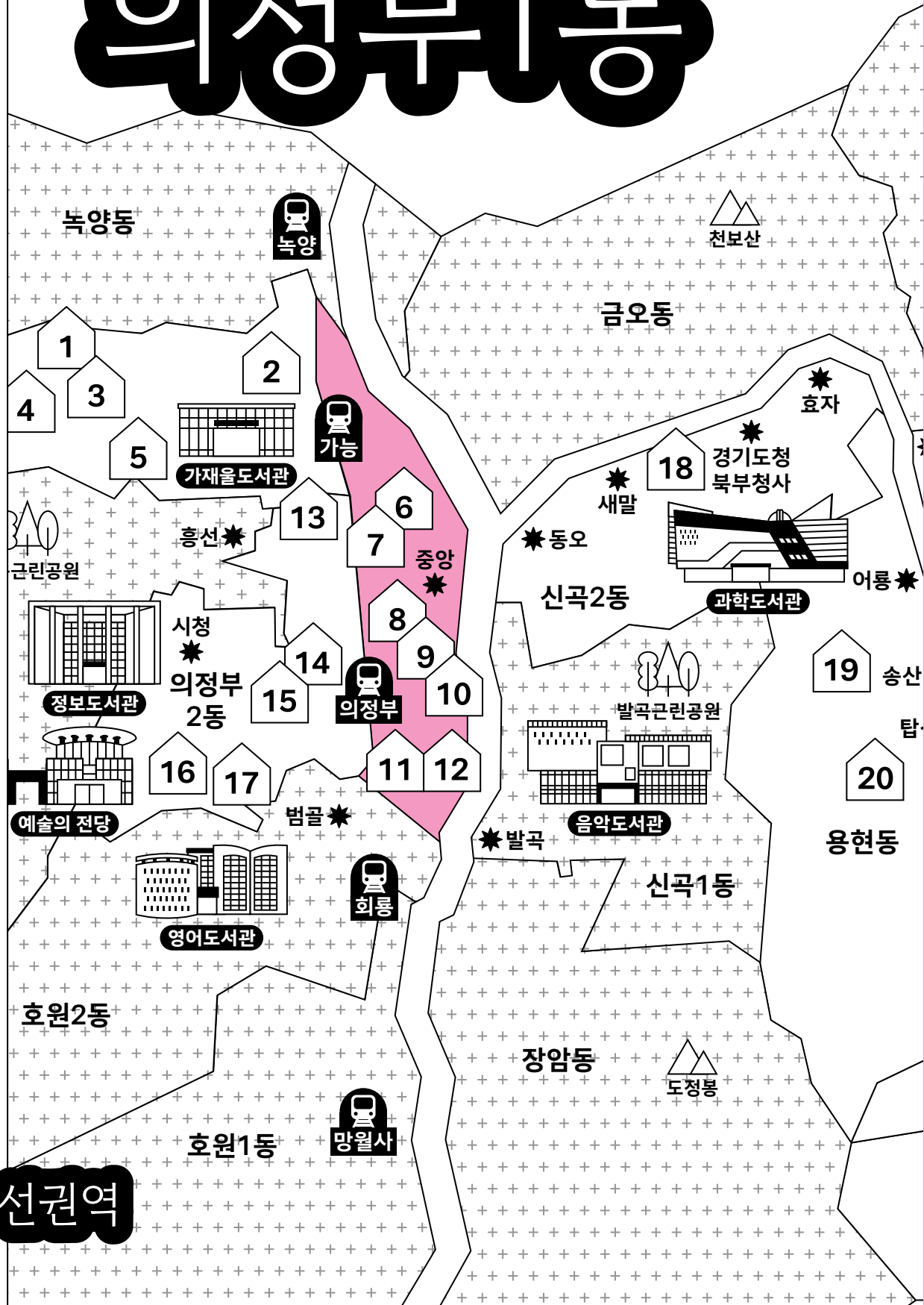
이 공간이 골목 모퉁이에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전통 먹거리를 나누고, 만들고, 알리는 곳이라는 걸 알고 방문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떡집을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윤을 내기 위해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마을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열심히 하는 동력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와서 떡 하나 사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게 마을을 위한 보탬이 된다는 걸 알아주세요.

주인장 최혜영

의정부1동

Uijeongbu 1-dong, Uijeongbu-si



의정부 시민들이 흔히 '시내'라고 부르는 곳. 의정부 경전철의 '의정부 중앙'역을 품고 있는 동네인 이곳은 의정부1동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시민들의 관념 속에서도 '중심'을 맡고 있는 만큼 사람, 차, 건물, 소리로 가득 찬 복잡복잡한 변화가입니다. 의정부1동엔 변하는 것도 많지만 변하지 않고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 예로, 의정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부대찌개 거리'의 노포들이 있지요. 언제 방문해도, 언제나처럼 우리를 반겨 주는 공간들의 존재는 동네에서 보내는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의정부1동에는 실험정신으로 가득 찬 <사이공간>들이 있습니다. '부대찌개 거리'만큼 강력한 임팩트의 골목 상권을 만들고자 의기투합한 공간들이 있고, 공간의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의정부1동의 <사이공간>들은 변화무쌍하지만, 오래도록 이웃들과 공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처럼 방문하는 사람들을 반겨주는 공간이 되어 가는 의정부1동 <사이공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레인보우처럼, 다양한 색을 펼칠 수 있는

#모노톤 #젊음 #기록

6

보우 스튜디오



3층에 자리 잡았지만 간판도 없이 작은 표지판 하나만 있는 이곳, 모노톤으로 꾸며진 렌탈 스튜디오인 '보우 스튜디오'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환대하는 흑백의 공간이다.

'보우'라는 이름은 공간의 톤과 맞닿은 '블랙 앤 화이트'라는 뜻에서 'BW', 레인보우의 '보우', 돕는다는 의미의 '보우(保祐)'까지 세 가지의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공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흑백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색을 채워 나가도록 돕겠다'는 것. 이름 그대로 공간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 빛나는 것이 아닌, 방문하는 이들의 색을 환하게 비춰준다. 공간과 사람의 소통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보우 스튜디오'를 소개한다.





김에스더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디자인 전공자라 처음에는 작업실이 필요해서 찾아보다가,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많은 사람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렌탈 스튜디오로 업종을 정했어요. 오픈 당시 서울에는 렌탈 스튜디오가 이미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제 고향인 의정부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부대찌개 거리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외부가 깔끔해서 눈에 띄었고, 주방에 욕상까지 있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럿이 함께하는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소파와 테이블까지 배치했습니다. 또, 공간에서 촬영할 때 인물이나 제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꼭 필요한 가구와 소품만 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주인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촬영 공간은 아니지만, 싱크대 쪽이 신경 쓰여서 고민하다 자갈을 깔았는데 생각보다 포인트도 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신경을 쓰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고양이, 강아지 밥그릇이 있는데 반려동물과 오는 분도 많을까요?

자주 오세요. 반려동물 데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반려동물도 환영하고 더 많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 요금을 안 받고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카펫은 주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웃음) 그래서 촬영 말고도 같이 오셔서 놀고 가시는 분도 계셨답니다.

공간을 운영하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약 당일 취소가 생기면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요. 렌탈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예약을 받는데, 예약 시간 바로 전에 취소하시면 그 시간에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힘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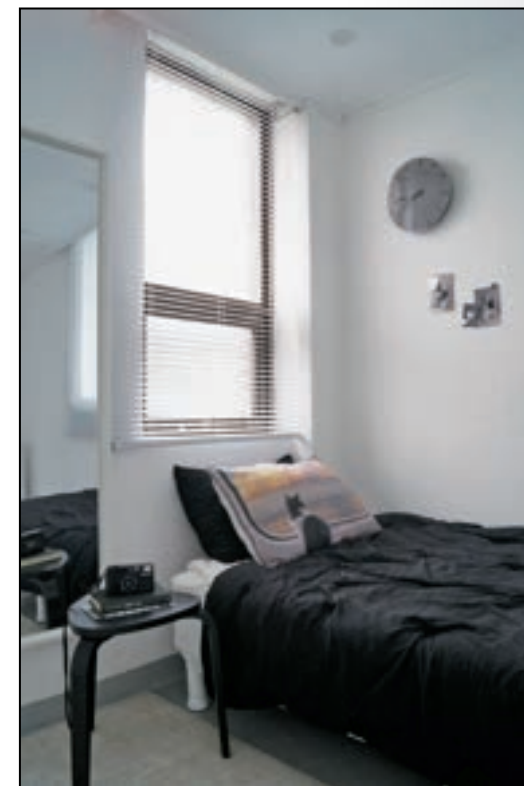


렌탈 스튜디오는 방문하는 분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까요?

맞아요.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예약하고 들어오셔서 촬영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픈 초기에는 작업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가끔 만날 수 있었죠. 간식거리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손님이 계셨거든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가 기억나네요.

주로 어떤 촬영을 하는 분들이 방문하시나요?

지금은 쇼핑물 제품 촬영을 위한 고객님들이 많이 와주시는데, 학생이나 크리에이터분도 오셔서 집에서 촬영하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놀다 가셔도 좋습니다.



**공간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숏폼 크루나 촬영을 처음 하시는 분,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 촬영 활동하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비를 대여해 드리고 촬영도 직접 하고 놀기도 하면서 편하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내어 드리고 싶어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보우 스튜디오'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공간과 연관된 다양한 작업을 해보고 있거든요. 저처럼 예술을 하시는 분이나 촬영 크리에이터 분과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더 나아가 같이 협업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며, 힘을 주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소통하는 크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이공간> 사업 프로젝트로 숏폼 크루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촬영 공간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한 없이 파티룸의 형식으로도 쓰이며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흑백사진'입니다. 오래된 사진은 추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흑백사진처럼 이 공간에 서의 기억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두 번째는 '친구 집'입니다. 마음 편하게 있다 갈 수 있는 친구 집과 같은 공간이라 생각해요. 마지막은 '우주'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레인보우에서 영감을 받은 '보우'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 넓은 우주까지 확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이 김에스더
인터뷰어 글 사진 김예겸
편집 박예은 이규빈

친구 집처럼 방문하셔서 편안하게
멋진 작업물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멋진 작업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주인장 김에스더



※ 현재 보우 스튜디오는 의정부동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준비 중입니다.

동아그림



북적거리는 의정부 중앙로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 군데군데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앙초등학교와 몽실학교 앞에 있는 ‘동아그림’을 소개한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만큼 하교시간에는 항상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 소리로 북적거리는 이곳. 아이들이 ‘동아그림’의 주역이라고 말하는 임동아 주인장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유리창엔 아이들이 그리고 간 그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뽕 뚫리는 넓은 통창 너머에는 이것저것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는 다정한 주인장이 보인다. ‘화실에서 도대체 왜 그리 바빠 움직이시나요?’라고 묻자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만 그저 고여 있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되고 싶어요.”라고 답하는 열정적인 주인장 덕에, 동아그림은 매번 새로운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빈 도화지에 색을 칠하듯 매번 다른 색을 보여주는 동아그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임동아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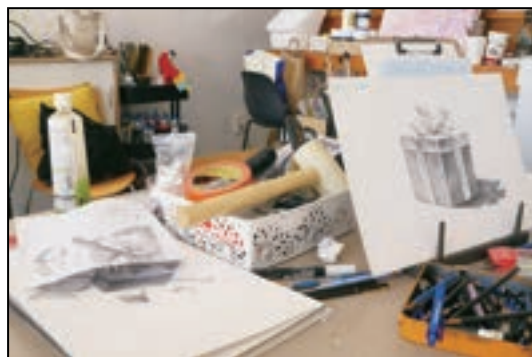
이곳은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던 자리였어요. 원래 이 공간이 두 개의 공간이었거든요. 처음엔 어머니가 가게 옆에 있던 반쪽짜리 공간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 작업공간도 필요했고, 물건도 많아서 늘 저한테 공간을 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반쪽 공간을 쓰다가 2년 전에 불이 났는데, 그때 공간을 아예 하나로 확장하면서 어머니가 가게를 저한테 다 넘겨주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아그림' 운영을 시작했어요.

공간 확장 후에는 학원 강사 일을 오랫동안 한 경력을 살려 소규모 수업을 열게 됐어요. 수업할 때 오랫동안 앉아서 그림만 그리다 보면 당분도 떨어지고 지치기 쉽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카페가 없어서 항상 수강생분들이 멀리서 음료를 사 오시거나 배달시켜서 드셨어요.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수업하는 중에 바로 편하게 음료를 드실 수 있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페도 열게 됐어요. 초창기에는 술이 접목된 클래스를 열고 싶었어요. 근데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카페를 열게 됐어요.

공간에 개인적인 바람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카페를 여는 게 바람 중 하나였어요. 공간이 없을 때는 집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늦게까지 작업하는 날도 많았는데, 작업을 하다가 졸리면 작업물을 그대로 넣어놓고 자고 싶은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불편했어요. 그래서 처음 공간이 생겼을 땐 개인 작업실로 정말 활용을 잘했어요. 이 공간에서 간단히 요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수강생분들도 그 부분이 필요해 보이셔서 카페를 열게 됐어요. 수강생분들의 편의가 가장 큰 목적이긴 했지만, 제가 원할 때 마다 먹고 싶은 음료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편하고 좋아요.(웃음)

바람이 하나 더 있는데, 이곳을 제가 필요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림도 맘껏 그릴 수 있고, 먹고 싶은 음료도 편하게 마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평소에 공간을 지키느라 못했던 활동들까지도 이곳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어요. 앞으로 <사이공간> 사업을 통해서 적용해 보려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공간의 구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공간을 조성하며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있을까요?

처음 구성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건 인테리어와 편리성이었는데 처음이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보기에 예쁘고 이용하기에 편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도 바뀌고, 사람들은 점점 눈이 높아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원하는데 한 공간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간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내부공사를 하면서 거울에 그림을 전시해 두던 선반을 다 뺐거든요. 자주 오시던 손님들이 원래 거울이 있었냐며 다들 처음 보시는 것처럼 놀라시는 거예요. 그림 전시 용도로만 계속 썼다면 아무도 저 거울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공간은 항상 일정 기간이 되면 유동적으로 바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인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 창문이에요. 통창을 통해 보이는 플라타너스 길을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재계약 기간에 다른 곳으로 옮길까 고민하다가 통창 때문에 안 나갔어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웃음) 계절별로 느낌이 달라요. 여름에는 플라타너스가 예쁘게 피어있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 눈 내릴 때는 세상이 고요해지는 느낌이라 엄청 아늑해요.



운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공간을 잘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하루살이처럼 한달살이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 월말이 되면 이번 한 달도 잘 넘겼다,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의 한 달을 연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요. 매번 반복되는 과정이 힘들죠. 만약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새 공간을 다시 꾸며야 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갑갑하긴 해요. 새 공간에 가면 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 있는 공간이나 잘 유지하자는 생각이 들어요.(웃음)

공간을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수상한 어르신이 늦은 저녁에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취한 와중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냥 간판을 그림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그림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림이 좋아서 들어왔다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께 그림은 낮에 오셔서 마음껏 구경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저는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아와서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손님인 것 같아요. 처음 오픈했을 때 왔던 조그만 친구들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해요. 전에 왔던 친구 중 한 명은 태권도 초록띠 따는 걸 힘들어 해서 자주 올었는데 지금은 검정띠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신기하면서도 좋아요. 또 아이들이 여기서 그린 그림을 붙여놓고 가요. 지금도 붙여 있는데 저 그림들은 청소하면서 못 뗐어요. 친구들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카페 주역들이라서 그런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



공간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래 취지에 맞게 그림 활동하기에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작은 클래스도 좋고요. 앞으로는 미술 수업과 예술 프로젝트도 같이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공간을 더 유동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싶어서 공간이 쉬는 날에는 요가 수업을 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화분이 많아서 플랜테리어나 가드닝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공간을 대여 해주는 건 어떠냐는 제안도 받은 적 있는데, 공간의 환경적인 면을 활용해 식물 관련 프로그램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동아그림'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제가 작년에도 이 사업에 의미 있게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새롭고 다양한 공간들이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신선한 공간들을 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중에서도 제 공간을 예체능이라는 큰 덩어리로 묶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체육을 접목해서 요가 클래스나 폴 댄스 같은 수업을 열어 보려고 구상 중이에요. 그 이후에 드로잉도 하며 예체능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계획 중이에요. 앞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공간을 단어에 비유해 보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식물 같아요. 그중에서도 '선인장'이요. 작업실에 있을 때 삼촌이 주신 건데, 원래 더 작았거든요. 처음엔 앙상하게 자라다가 카페를 차리고 여기서 키우게 되면서 갑자기 무럭무럭 커졌어요. 식물이 언제 어떻게 자랐는지 모를 정도로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쑥쑥 자라나 있는데, 저와 이 공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공간과 식물들이 커가는 그 시간만큼 저도 같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 같고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공간은 저의 목표죠.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할 삶의 터전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곳이니깐요. 그래서 공간이 만약 완전히 제 소유가 된다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인터뷰이 임동아
인터뷰어 글 사진 최예원
편집 박예은 이규빈

저희 공간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소개한다면 저희 공간은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미있게 구경하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이 모호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이번에 <사이공간> 프로젝트도 참여하며 정체성이 더 확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장 임동아



뇌프



의정부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나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개방감 있는 테라스가 눈에 띄는 아늑한 공간이 있다. 우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감성적인 분위기가 흘러넘치는 ‘뇌프’가 그 주인공이다.

의정부를 너무도 애정하는 주인장은 행정동이 9개인 의정부에 맞춰, 프랑스로 9를 의미하는 ‘뇌프’를 가게 이름으로 지었다. 뇌프는 와인바이자 마켓다이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정해진 틀 없이 와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겼으면 한다는 주인장의 가치관에 따라 외부 음식 반입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곳. 구석구석 눈에 띄는 포스터와 엽서는 주인장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음악과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이곳을 와인바이자 여러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그가 운영하는 놀이터 같은 공간 ‘뇌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주인장
전민재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저에게 의정부는 너무 익숙한 곳이에요. 의정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가게를 열게 됐어요. 의정부 사람이기에 지역에 관심이 많아지고 의정부 미식과 와인 식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 전문적으로 와인을 배우게 되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많은 분께 좋은 와인 문화를 알리고 싶어졌어요. 보통 레스토랑에서 마시는 와인은 비싸니까,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합리적이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열게 됐어요. 제가 놀이터처럼 편하게 즐기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기도 했어요.



와인에 대한 애정이 크신 것 같은데, 와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미있는 게, 저는 사실 술을 잘 못해요.(웃음) 와인이 어떻게 보면 커피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커피도 이 집 저 집, 맛이 다르고 그 맛을 알면 알수록 재미를 느끼게 되잖아요. 와인도 누구의 손을 탔는지, 어떻게 제조되었는지에 따라 맛의 깊이가 다르고 그 맛을 알수록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와인 한 병에 장인의 정성과 역사가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와인이 하나의 작품이자 예술적인 집합체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뇌프'에서 나누고 싶어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초창기에는 제로웨이스트, 유기농을 강조했어요. 와인도 공장에서 제조되지 않은 내추럴 와인만 팔았고요. 초반엔 수익을 많이 생각하지 않기도 했고 날이 갈수록 환경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며 운영하려고 노력했고, 대나무 칫솔이나 친환경 비누도 판매했어요. 당시에는 좋아해 주시는 분도 꽤 계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졌죠. 특히 가족이 생기게 되면서 매출이 중요해지다 보니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지역과 고객에 맞게 저가 와인 위주로 팔게 되었고요. 와인 자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성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환경 이슈를 의식하며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초반보다는 덜 강조하게 됐어요. 아쉬운 마음이 남아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비건이나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뇌프'라는 이름에서부터 의정부에 대한 관심이 엿보여요. 공간을 조성하며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요?

공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최대한 알차게 담을 수 있게 노력했어요. 의정부적인 요소를 넣고 싶었는데, 제가 의정부 재래시장을 좋아하거든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기도 하고 지금도 자주 애용하는 곳이라 이름도 제일시장과 연관된 것으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결국 '뇌프'가 되었지만, 전시 부분에서 제일시장을 모티브 삼아 현대화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정겹지만, 너무 올드하지 않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공간에 두는 아이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디자인도 할 줄 알아서 직접 제작한 포스터나 그림을 이용해서 편안한 이미지를 주려고 했어요.



공간의 구성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주인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바깥에서 안을 봤을 때 가게 내부가 한눈에 들어오는 뷰를 좋아해요.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보이는 전경이, 제가 만들었지만 참 맘에 들어더라고요. 특히 날이 선선해질 때 테라스를 오픈해 놓는데 개방감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전에 대관을 한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생일 파티 대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서서 즐겁게 노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주인장으로써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외부로 나와서 제가 없는 제 공간을 보면서 정말 새로웠어요. 공간에서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감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감사했죠. 어쨌든 그분들이 평소에 공간을 눈여겨보시다가 찾아주신 거니까요.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초창기에 비해 사람들이 안 찾아주는 점이 큰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일에 집중을 많이 못했거든요. 지금은 주부가 본업이고 공간 운영을 부업처럼 하고 있어서, 당연한 거지만 손님들이 점점 덜 찾아오시더라고요. 또, 와인이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방문하는 입장에선 일반 음식점보단 부담이 되니까 잘 찾아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지로'라는 프로젝트를 만든 것도 저희 공간을 홍보하고 더 많이 오시게끔 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시나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은 자주 오시는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뭔가 주춤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쉽더라고요. 거리낌 없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딸이랑 와인바 테라스에 앉아서 같이 와인 먹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방문 하셨을 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께 이런 문화를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예뻐서 서비스도 더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무알콜 와인도 판매 중인데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같이 즐기는 와인 문화도 만들고 싶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와인 활동도 새롭고 좋을 것 같아요.



공간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식문화죠. 식문화에 관한 활동이면 뭐든 좋아요. 여기서 그냥 김치를 담가도 좋고 요리 교실을 열어도 좋고요. 저의 바람을 조금 담자면 의정부적 요소를 넣고 싶어요. 의정부와 관련된 여러 식문화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의정부 관련된 식문화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 메뉴에도 '부대 떡볶이'와 '의정부 옛날 스테이크'라는 로컬메뉴가 있고요. 또 의정부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안주나 경기 북부의 식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식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자연', '의정부', '문화'입니다. 첫 번째 '자연'은 제가 동물복지나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꼽았고 자연적인 와인, 음식을 통해 자연스러운 공간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의정부'는 개인적으로 제 가게가 제일 의정부다운 가게라고 생각해요. 의정부 관련 이름 지은 것도 그렇고, 방향성도 의정부 음식을 더 개발하는 게 목표거든요. 의정부 시민들의 식문화 수준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단순히 제가 나고 자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저도 의문이기는 해요.(웃음) 공간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폐업 하면 했지, 그전까지는 계속 이런 로컬문화를 지키다가 마무리하고 싶어요.

마지막 '문화'는 여기를 운영하면서 어떤 음식을 낼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즐길 거리를 맛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문화적으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인 요소를 많이 접하면서 자랐거든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모든 문화적인 요소를 저도 다 즐기고 싶고, 문화에 관한 활동을 여기서도 많이 시도해 보고 싶어요.

인터뷰이 정문준

인터뷰어 글 사진 최예원

편집 박예은 이규빈

의정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의정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심들이 더 좋은, 더 나은 의정부를 만드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공간을 방문해 주신다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걱정 없이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와인은 비싸다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지만 '뇌프'는 그런 것들은 깨고자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오셔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장 정문준



위아올라운지



‘위아올라운지’는 화려하고 개성적인 아트 굿즈와 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아지트 공간이다. 경전철 의정부중앙역 근처를 걷다 ‘위아올라운지’의 포스터와 입간판을 발견해도, 공간에 발을 들일 땐 조금 주눅들 수 있다. 하지만 처음 만나도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방문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성민 주인장은 동네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밌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그리고 ‘위아올라운지’는 그 실험이 펼쳐지는 실험실 같은 공간이다. 주인장은 직접 동네 가게에 자주 드나들며 친구를 사귀었던 경험, 공간에서 ‘작당모의’하는 경험을 했고, 그 보물 같은 경험들이 공간을 운영하는 기쁨과 동력이 된다.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발적인 일들이 공간의 ‘바운더리’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성민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에서 나고 자라서 스무 살에 서울로 올라와 일을 했어요. 그러다 신혼집을 의정부로 마련하게 되면서 초밥집을 시작했어요. 초밥집을 7년 정도 운영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더는 힘들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젊은 바이브도 느끼고 싶고, 많은 사람과 놀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 골목에 공간을 꾸리게 됐죠. 아래층에 있는 카페 '스르르'가 저의 아지트였는데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마침 2층에 들어올 기회가 생겨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초밥집을 할 때 혼자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스르르'에 단골로 자주 방문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공간을 하나 기획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거리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어요. '의정부 힙지로'라는 의미의 '의지로'라는 이름을 거리에 붙이고, 이웃 가게인 '스르르', '뇌프' 사장님과 프로젝트를 기획해요. 지금은 세 공간만 함께 하고 있지만 협력 공간을 더 모아보려고 해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나요?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호기심이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전에 운영한 초밥집은 중심 거리와 떨어져 있어서 외로운 공간이었어요. '위아올라운지'는 인구 밀도가 비교적 높은 곳에 있고, 바Bar 테이블이 크게 있다 보니깐 필연적으로 손님들과 대화하게 돼요. 저의 태도가 손님들에게 긍정적으로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의 아지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즐겨주는 친구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허들을 넘도록 손잡아 주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단골끼리 친해져야 제가 계속 케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끼리 만나서 놀고,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손님들과 교류가 많으니 기억에 남는 일화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여기가 만남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어?' 이러면서 서로를 보다가 '너 어디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어?' 하는 거죠. 의정부가 좁으니까, 지인을 만날 확률이 대단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죠. 공간에 대한 기억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사의 섹시함이잖아요. 공간에서 느낀 임팩트가 클수록 공간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재차 방문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단골들이 알고 보니 다 연결된 경우도 많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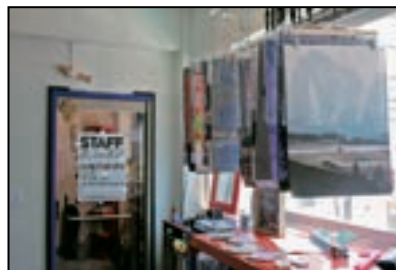
주인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도 궁금해요.

혹시 올라올 때 1층 입구에 문 보셨나요? 제 얼굴이 담긴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그 포인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걸 보고 올라오는 초밥집 고객들도 있어요. '터미널 앞에서 초밥집 하던 사람이 왜 여기 있어?' 하시고요. 그런 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시나요?

공간을 검색하면 혼술이나 바Bar 같은 키워드를 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요. 힙한 바이브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걸은 평범할지 몰라도 끼와 에너지를 내재한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분들이 왔으면 해요. 삶의 폭이 큰 사람들, 잘 노는 사람들. 여기 오면 정말 신나게 놀 수 있거든요.



운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당연하게도 수익이죠. 내 욕구를 비즈니스와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요.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지만 그게 생업의 맥락을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아 좀 피곤한데?', '오늘 좀 아픈데?' 이런 식으로 내 컨디션에만 맞춰서 문을 닫게 되면 비즈니스 마인드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내 컨디션과 생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모든 자영업자의 딜레마 아닐까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공간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하기도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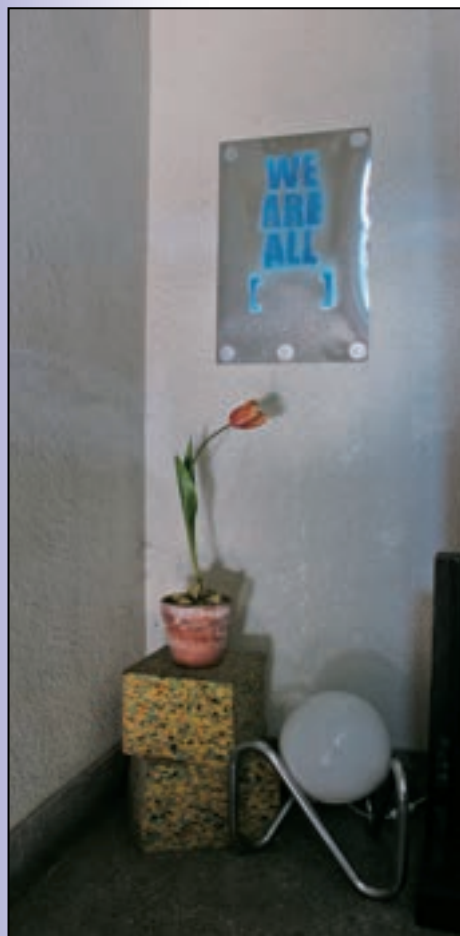
공간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의지로'의 내실을 잘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리끼리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사이공간> 사업도 알게 되었고요. 이런 필드가 크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의지로'는 세 공간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각자의 색을 지키면서 재미있는 일을 벌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 채널로 송출하는 활동도 해요. 인스타그램에 회의하는 걸 촬영해서 올린다거나 하는 일이에요. 무언가 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위아올라운지’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의지로’와 <사이공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이게 가다듬어지면 다른 것들도 욕심날 것 같아요. 내실을 잘 다진 뒤에 더 앞으로 나아가야죠.

‘사이공간’이라는 이름의 말맛이 좋은 것 같아요. 맥락이 저희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우리 공간은 정말 중심 거리 ‘사이’에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사이공간의 지향점과 저희의 색깔을 맞춰볼 생각이예요.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와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제 키워드는 ‘에너지’와 ‘자유분방’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에너지가 많아요. 쉴 때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움직이면서 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곳도 처음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공간의 변수가 상당한데, 오픈할 때는 지인들 위주로 바Bar를 하다가 운 좋게 소문이 났어요. 손님들이 테이블도 낡달라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넓어지면 제가 전부 케어하지 못할 것 같고, 테이블이 많은 전형적인 느낌을 지양해서 안 놓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원하시니까 놓게 되었고, 오히려 지금처럼 그들끼리 즐겁게 적극적으로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확장된 것 같아요.

‘위아올라운지’는 ‘아지트’예요. 생각보다 2층에 올라올 때 쭉뚝거리게 된단 말이지요. 심리적 허들을 넘고 올라오면 아지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간을 아지트처럼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아지트이자 ‘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술 먹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인터뷰이 이성민

인터뷰어 글 사진 이규빈

편집 박예은 이규빈



맘껏 놀아라! 놀이터다!

여기서는 각 잡을 필요 없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크게 말해도 돼요.

어차피 내가 제일 크게 지르니까.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내가 감당할 테니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꺼내보면서

재미있게 놀아라, 말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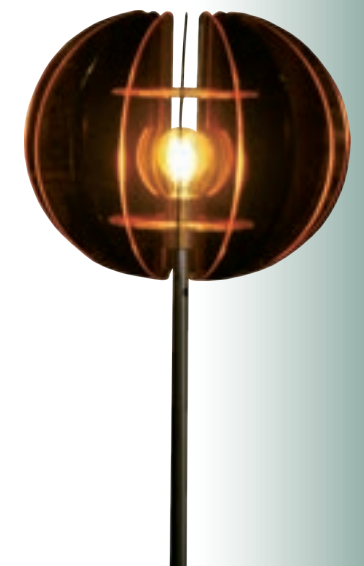
주인장 이성민

스르르



‘스르르’는 커피와 와인을 낮과 밤 상관없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카페다. 경전철 의정부 중앙역에서 내려 분주한 시내 거리를 조금만 걷다 보면 ‘스르르’를 발견할 수 있다.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길목 한 가운데 있다가도 이 공간에 들어서면 시간이 천천히, 스르르 흘러가는 기분이다. 널찍한 유리로 되어 안이 들여다보이는 출입구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듯 활짝 열려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일행과의,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다.

고정훈 주인장의 바람은 시간이 흘러도 ‘스르르’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것. 뭐든지 빠른 호흡으로 흘러가고, 변해가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환영하는 공간에 기대어 쉬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공간 주인장
의정부1동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쪽 살다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의정부에서 카페를 운영했어요. 그 카페를 운영하며 의정부 상권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8년에 ‘스르르’를 이 골목에 열게 됐습니다. 이 공간을 열기 전 운영했던 카페에서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과 관계를 잘 이어와서, ‘스르르’ 오픈 초기에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2년 동안 다른 일을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잠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원했는데, 제 취향에 맞는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카페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공간을 상상하게 됐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취향에 맞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저와 같은 니즈를 갖는 사람도 있겠다 싶었어요. 이럴 거면 다시 직접 해보자고 한 거죠.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나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의 암묵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간 주인장이나 스태프들의 시선이 손님들과 마주치면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손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니까, 최대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구상하게 됐어요. 혼자 와서도 즐길 수 있고, 온전히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바람을 인테리어에도 반영한 거죠. 테이블 간격도 넓히고요. 지금은 리뉴얼로 사라졌지만, 창밖을 볼 수 있는 바Bar 테이블이나 파티션으로 분리된 공간도 있었어요.

공간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공간을 조성하며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공간 컨셉을 커피와 와인으로 잡았어요. 공간을 오픈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달라야 하고,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느 카페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 차별성이 없으니 눈에 안 띌 것 같았고, 카페 특성상 매출이 높지 않은 것도 고민이죠. 그래서 와인이나 위스키를 메뉴에 넣고, 영업도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새벽까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부분을 인테리어에 녹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공간 바깥에 ‘Day Coffee, Night Wine’이라고 해 놓았는데, 안쪽 조명이 어둡기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와인바로 알고 카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공간의 정체성이나 컨셉이 손님들에게 잘 전달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도 해서, 계속 고민하고 수정해 나갔어요.

‘스르르’는 주변에 없었던 컨셉이다 보니 오픈하고 처음에는 장사가 잘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줄기도 했죠.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코너에 자리 잡은 빨간색 조명을 좋아해요. 저런 타입의 조명을 오랫동안 찾았던 차에,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이윤지 씨가 찾았어요. 저 조명이 인테리어의 절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죠. 또 하나는 커피를 내리는 바예요. 나무가 통으로 되어 있는 바인데 잘 없어요. 구하기 힘들었어요.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바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저희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쓰지 않고 모카포트로 쓰거나 핸드드립을 하고 있어서 커피 내리는 공간이 다른 카페들과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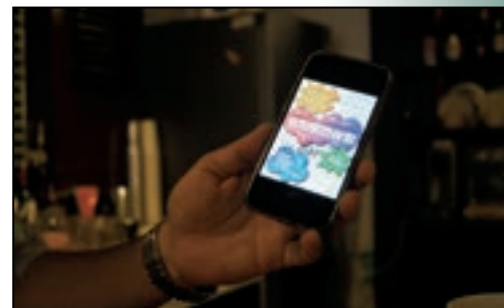


앞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또, 공간을 운영하며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매출이 한 80퍼센트 정도는 빠졌어요. 코로나 때 영업시간 단축으로 타격이 컸고,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진 경향이 있어서 영업시간이 많이 줄었죠. 새벽 1시까지도 손님이 있던 곳인데 이제는 10시만 되어도 돌아가시곤 해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대형 카페나 프렌차이즈 카페가 이슈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 개인 카페 자체의 어려움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카페 방문 자체가 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즐거운 일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사이공간>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위아올라운지’의 이성민 주인장이 첫 단골이었어요. 그땐 그분이 의정부 터미널 근처에서 초밥집을 하셨는데, 낮에 와서 커피나 술을 세 잔 시키고, 밤에도 와서 또 세 잔 시키는 독특한 손님이었죠. 그렇게 한두 달, 두세 달 낮에는 혼자 오고, 저녁에는 지인들을 데려와서 바에 앉아서 있다 가시니까 대화하게 됐고, 술도 함께 마시면서 가까워졌죠. 그게 물꼬가 되어, 주변 가게의 사장님들이 오시고, 대화도 나누다 보니 네트워크가 커졌어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서 ‘의지로 프로젝트’에 힘이 실릴 수 있었던 거죠. ‘위아올라운지’, ‘뇌프’, ‘스르르’ 세 가게는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 함께 행사를 열거나 파티 기획도 하면서 연결이 지속됐고요.



파티할 때도 재밌었어요. 주변 가게 사장님들과 네트워킹하고, 협업하면서 사장님들이 잘 알고 있는 DJ들을 섭외해 DJ 파티도 했어요. 파티 형식은 술은 여가에서 사 먹고, 안주는 직접 만들어 오시던가, 시켜 드시든가 하는 식으로 했는데 공간을 내어준다는 개념이 더 컸죠. 실은 파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장사하는 게 수익이 더 컸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 공간이 외진 공간이기 때문에 파티를 가끔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지로 프로젝트’로 거리에서도,
공간에서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르르’에서는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의지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한 건 올해 6월이에요. ‘뇌프’ 주인장님과 ‘위아올라운지’ 주인장님의 재능과 센스가 좋아서 따르고 있죠. 재밌는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거리 활성화를 해서 보다 나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공간에서 할 수 문화 활동이라면... 침묵 속에 책 읽기, 밤새 영화 보기, 작은 음악회나 재즈 공연 같은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네트워킹이나 거리 활성화,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게다가 ‘스르르’를 시작할 땐,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심 거리에서 떨어져 있으니까요. 여기가 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또 다른 카페를 여러 개 차려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바빠지면서 그런 건 하지 못하고 있죠.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획하는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는 얘기지만, 장사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애증 같은 게 있어요. ‘스르르’를 차리기 전에 카페를 하면서도 ‘다시는 장사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공간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상상도 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간을 좋아했고.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나이 들면 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요. 중고 책을 가져오면 커피를 한 잔 주는 카페를 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익적인 면 보다는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어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스르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방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와서도 변함이 없다고 느끼는, 여기에 그대로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릴 때 대학로에 가던 레코드 바가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음악 ‘이거 틀어주세요’ 하면, 다 틀어주셨고 없는 음악이 없었어요. 그런 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나이를 더 먹고 가도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요.

저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오래 하고 싶고, 제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이 공간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공유공간으로서 ‘스르르’는 ‘의지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거나 준비하고 있어요. 책도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런 내용을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의지로 프로젝트’로 이 근처 상권의 사장님들 인터뷰를 하거나 번영회를 열거나 하는 등 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다루고 싶기도 하고요.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사람, 관계,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 오고,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통해 연결되고, 연결되어 우리가 되는 점과, 선과, 면의 형태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이 고정훈

인터뷰어 글 사진 이규빈

편집 박예은 이규빈



‘스르르’가 온전한 본인 시간을 즐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요.

주인장 고정훈

영희책방



박영희 주인장은 이 공간이 국어책에 나오는 친구 ‘영희’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방이 되길 바라며 문을 열었다. 주인장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누는 마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가는 주고받는 마음은 선물처럼 우리를 기쁘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능이 큰 에너지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아주 작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이곳에서는 자신을 거대한 거인처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책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영희책방’에서 큰 에너지와 희망을 주고받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박영희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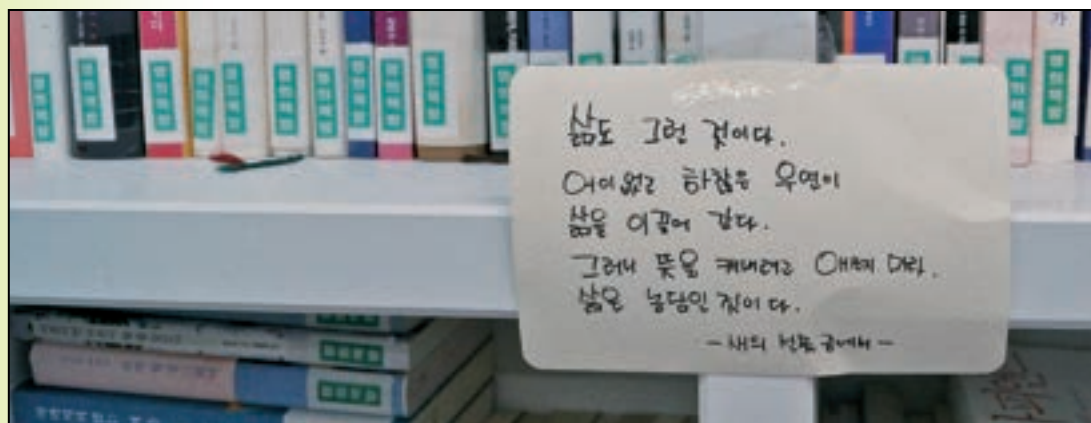
책방은 아주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생각한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염려와 도움의 손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서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학습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다행히 일하는 사무실 바로 옆에 이 공간이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공간을 통해 만나고 배우고 익힘으로써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내가 배운 것을 또다시 나누게 된다면 성장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삶은 끊임 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곳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재미, 의미가 있는 공동체적 학습공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책과 사람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과 책이 만났을 때 성장의 발돋움의 뒀을 스스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연결로 배우고 익히는 학습 놀이터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이 공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간에 들어서면 녹색의 벽과 책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주인장님이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가 궁금해요.

누구라도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초록색으로 포인트로 주었어요. 초록색은 자연의 색이고 편안하고 상쾌함이 있어서 간판, 책 라벨도 초록색으로 포인트로 줬어요.



공간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시나요?

건너편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모임을 하시는 분들과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이 오세요. 한 번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화분에 꽃 심기, 태극기 그리기도 했거든요. 공간을 공유하며 <사이공간>을 통해 더 알리고, 숨이 쉬어지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단체가 아니라도 혼자 와서 조용히 책 읽고 싶으신 분, 이 공간이 본인의 창작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서로 시너지가 나오는 배움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세대에게 배움의 공간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운영의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학습과 만남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공간을 움직이려면 임대료와 공공금 등을 포함한 운영비가 나가게 됩니다. 이 공간이 오랫동안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할 것 같아서 멤버십 제도를 생각 중입니다.

공간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무엇인가요?

올해 플리마켓을 열었어요. 안 입는 옷, 가전 등 다양한 품목을 기부받아서 총 2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냈어요. 개인 기부금까지 총 300만 원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할머니 옷을 하나 사고 싶다며 3천 원을 들고 왔어요. 하얀 레이스 옷인데 가격표에 7천 원으로 붙어 있었어요. 아이의 예쁜 마음에 3천 원에 팔았는데 할머니를 생각하는 아이가 참 인상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3일 동안 느꼈던 건 사람들이 나누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열어 놓으니까 나눔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는 남과 함께 하고 나누는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터뜨려 주면 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느꼈어요. 끝나고 나서 몸살도 나고 병이 났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 번 더 플리마켓을 해서 먹거리를 나눔 예정이에요.

책, 만남, 나눔 등의 키워드로 설명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 밖에도 공간에서 해볼 수 있을 만한
문화 활동이 있을까요?

긴 시간을 두고 발걸음 하나 내딛는 마음으로
'작가 박영희'로 남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독립출판 작가들이나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림, 시, 사진 등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작품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자신의
꿈을 못 펼친 채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움츠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셔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동기가 되어 하나를 터뜨리면 민들레처럼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걸 느끼거든요.
모여서 에너지를 받고 동기를 받아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영희책방'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큰 틀로 보면 학습 공동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싶어요. 사회적 공동체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운영과 연결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예정된 수업을
잘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멤버십 제도로 운영
해서 함께 이 공간을 쓰고 같이 시너지를 내는
효과를 내서 지속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영희책방은 저의 학습 공간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성장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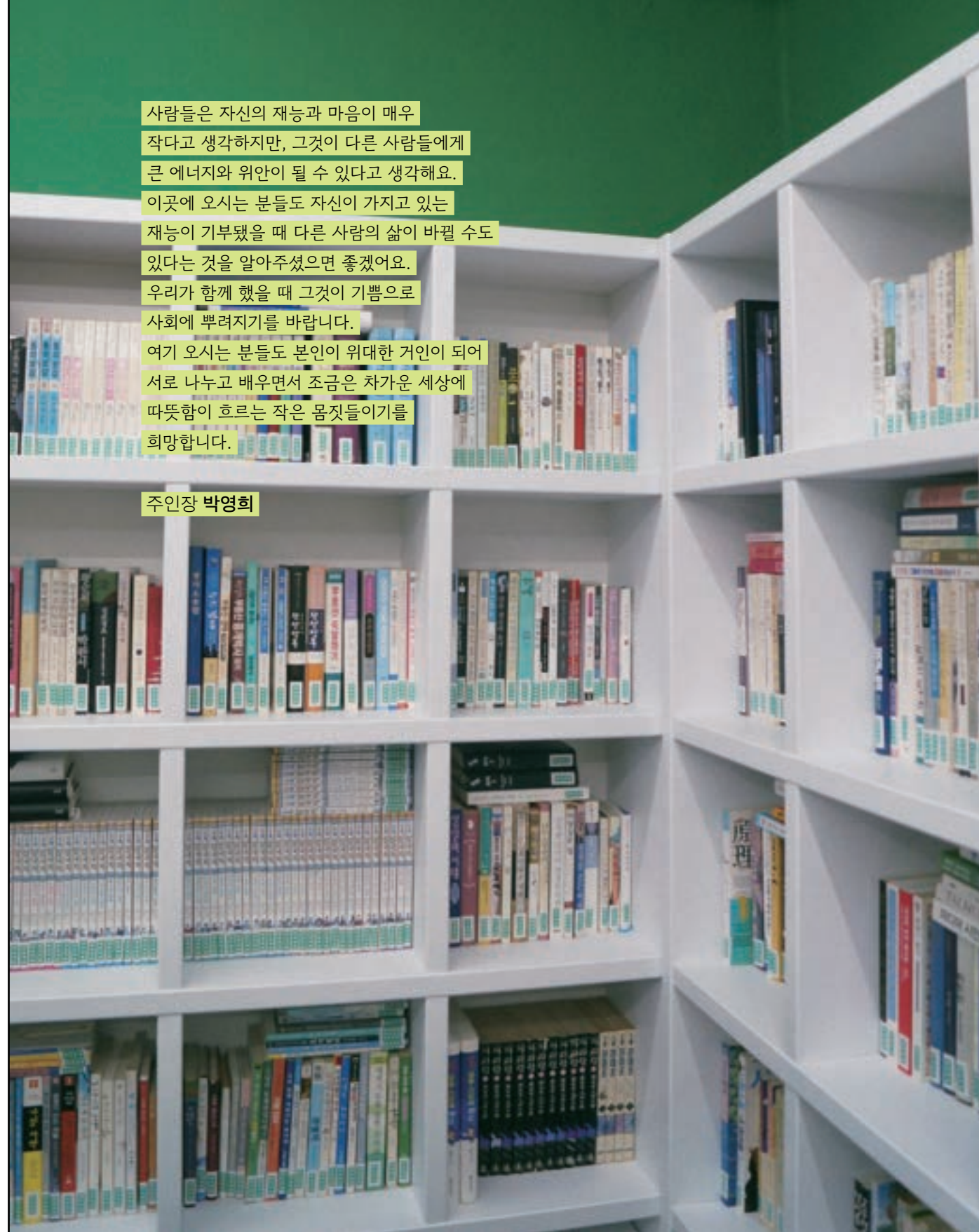
<사이공간>을 통해 동네에 있는
이 작은 공간이 조금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이공간>에 다양한
공간들이 함께하더라도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과 많이 배우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희책방'이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이 박영희
인터뷰어 글 사진 김예겸
편집 박예은 이규빈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마음이 매우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에너지와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기부됐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사회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도 본인이 위대한 거인이 되어
서로 나누고 배우면서 조금은 차가운 세상에
따뜻함이 흐르는 작은 몸짓들이기를
희망합니다.

주인장 박영희



의정부2동

Uijeongbu 2-dong, Uijeongbu-si



시청, 시의회, 세무서, 보건소 의정부의 핵심 행정기관과 의정부 시민들의 단골 약속 장소이기도 한 '태흥시네마'가 있는 의정부2동은 '신시가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합니다. 의정부2동은 걷는 재미가 있는 동네입니다. 넓은 도로와 키가 큰 가로수가 있는 큰길을 걷다가도, 건물과 건물의 틈 사이로 들어가 골목길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 집니다. 의정부2동을 가로지르는 백석천을 따라 걸어도 좋지요.

의정부2동의 <사이공간>에 방문하는 것도 의정부를 탐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을 극장, 갤러리, 복합문화카페, 공방까지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감각을 깨워줍니다. 찬찬히 동네를 걷다가 일상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방문하거나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은 지역에 대한 애정을 부풀려 주는 마법이 아닐까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화가 가진 힘을 믿고 있는 의정부2동의 <사이공간>을 소개합니다.

하굴공방



떠들썩한 수다 소리가 들리는 동네 미용실과, 커다란 간판의 다방이 가득한 기능동의 정겨운 골목길 속에서 툭툭 튀는 공방을 마주한 적이 있는가. 유리창 속 눈길을 사로잡는 아기자기한 공예품들에 이끌려 들어가 보면,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상상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하굴공방'이 그 주인공이다. 의정부중학교 부근에 자리 잡은 '하굴공방'은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이다. 주문을 받아 맞춤 제작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팔찌, 목걸이, 반지 등 작은 액세서리부터 캔들과 레진 공예까지 체험할 수 있으며 비건 음료도 함께 판매한다. 먹을 것도 있고, 쉴 곳도 있고, 원한다면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아지트라고 생각한다는 하다연 주인장은 어떤 공간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그저 목적 없이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휴식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한다.

사람들이 공간에 모일 때나 공예품을 만드는 본업을 할 때마다, 반짝거리는 눈빛이 인상적인 그가 운영하는 '하굴공방'을 소개한다.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비건 디저트 카페를 했던 곳이에요. 공방은 따로 지하상가 '청년몰'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비건 카페 따로, 공방 따로 이렇게 두 군데를 동시에 운영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두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 점점 힘들고, 또 제 본업이 공방이라서 카페 보다는 공방 일에 더 치중하게 되더라고요. 한계를 느껴서 결국 비건 디저트를 제외한 공방 카페 느낌으로 재개장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공간을 열게 됐어요. 공간은 '청년몰'보단 여기가 더 넓어서 지하상가에 있던 걸 다 들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계속해서 공간이 바뀌고 있어서 아직 이렇다 할 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한 곳에서 판매도 해야 하고, 수업도 해야 하고, 개인 작업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더 커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만큼은 내 바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공간 전체가 저는 다 소중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공예품들을 판매하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창문 쪽 전시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간을 이곳저곳 보완해서 앞으로 더 발전해 갈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전부 소중한 것들로 채워진 공간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테이블이 있는 앞쪽은 손님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뒤에 따로 사무실 겸 제 개인 공간을 빼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보니 저 뒷공간이 가장 편하고 좋긴 해요.(웃음) 또 제가 앞쪽에 계속 나와 있으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손님들이 계실 땐 주로 이곳에 있어요.

하나를 더 꼽자면 창문 쪽에 공예품들 전시해 둔 공간이 좋아요. 아무래도 제가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는 곳이니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작은 전시회같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나가면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좋아요.

운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공방이 '청년몰'에 있을 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인연이 닿아도 도와주시고 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롯이 혼자서 이끌어 가야 하고 독립해야 하니까 막막함이 커요.

'청년몰'에 있을 땐 접근성도 좋았어요. 지하철역 바로 밑이기도 하고 '청년몰' 자체가 홍보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여기는 동네 골목이잖아요, 아무래도 차이가 나요. 홍보도 힘들고, 찾기도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죠. 아직도 여기 지나가시면서 이런 곳이 있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간을 알아도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요. 특히 공예 쪽인 레진아트나 주얼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롯이 혼자 공간을 이끌어 가다보면 방문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마음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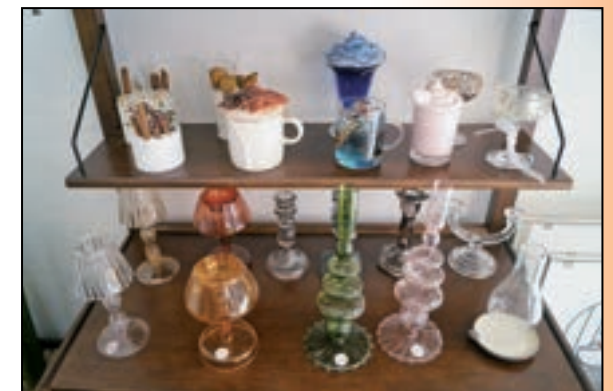
<사이공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참여자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런 사업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기억에 남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활동들이 더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공간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시나요?

동네 주민분들이랑 골목 지나가시다가 들어오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오늘은 또 뭐가 있나 하고 신상품들도 한 번씩 보시고 가세요. 앞으로는 학생들도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어요. 근처에 학교가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와서 구경도 하고, 아니면 공간에서 뭔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즐겁게 지내다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학생들 특유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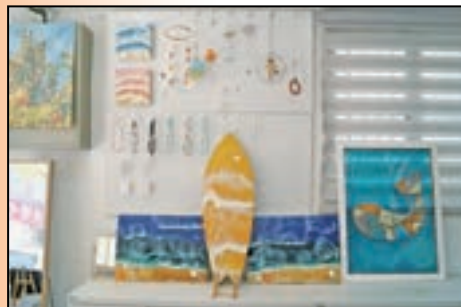
공간에서 해보고 싶은 문화 활동이 있으신가요?

공방이니까 공예품들을 만들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독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 공간이 좀 아늑하다 보니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심오한 책 말고 가볍게 읽고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요.(웃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들이나 취미 생활 하기도 좋아요. 그냥 어떤 것이든 소모임 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하굴공방'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는 지금 여기서 안주할 게 아니라 더 큰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많은 분이 유입됐으면 좋겠어요. 또, 최대한 많은 분과 친해지고 싶어요. 공예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적이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지트 같은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게 앞이 미용실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 옛날 사랑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간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 계속 혼자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서 이곳이 사람들에게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공예 쪽 분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서울로 나가지 않더라도 여기 의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걸 더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강생 중에서 저처럼 공방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창업 준비를 하기 위한 공간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 예비 창업자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본인 수업도 진행해 보며 자기 기량을 좀 넓혀볼 수 있는 경험이나 발판이 되고 싶어요.



'아지트'라는 단어에 빗대어
'하굴공방'을 소개할 수도 있겠네요.

'아지트'라는 단어에 꽂히긴 해요. 공간이 작기도 하니까요. 먹을 것 있지, 쉴 곳도 있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지, 재미있는 아지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점'과 '방앗간'이라는 단어도 떠올라요. 예비 창업자를 위한 발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사람들이 편하게 쉬다 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하다연
인터뷰어 글 사진 최예원
편집 박예은 이규빈

아직 이 공간이 어색하신 분들이 많나 봐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궁금하시면 그냥 문 열고 부담 없이 들어 오셔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게니까 손님들이 뭐라도 사야 하나
생각하시는데, 오셔서 구경만 하고 나가셔도 돼요.
그런 건 개의치 않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인장 하다연



살판마을극장



지하상가 구석에 자리 잡은 이곳.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덩덩, 덩덩, 점점 커지는 북소리를 따라가면 ‘살판’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이름 그대로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살판협동조합’은 24년째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전환으로 내실을 다지게 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자체 기획한 작품을 공연하고, 지역의 청소년 연극동아리나 장애인 풍물, 다문화가정의 여성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살판마을극장’,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함께 가치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 ‘살판문화학교’를 운영한다. 문화예술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기획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틈이 없는 이 세상에, 같이 만들어 가자고 말을 건네는 이곳. ‘살판마을극장’을 만나보자.





이곳의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풍물 인생 30주년을 맞이한 하창범 예술감독님이 살판에서 근무한 지 30년을 맞이 하셨습니다. 풍물 인생을 살판에서 시작했다는 뜻이죠. 1993년에 처음 서울 살판으로 출근 하셨을 때부터 경기 북부지역에서 문화운동을 목표로 활동하셨어요. 경기 북부에서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99년에 의정부에 작은 연습실이 있는 살판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목표는 극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공간을 발굴하게 되면서 여기라면 가능할 수 있겠다 싶었고, 단원, 회원, 후원회원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살판마을극장'을 만들었어요.

문화 운동으로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가치관이 인상 깊어요.
'살판나는 세상'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살판나는 세상'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세상이고, 자기 뜻을 펼치고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 구속이나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이고, 재미있고 자유로운 세상을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하는 세상을 담았어요.



공간을 조성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요?

공연도 하고, 보고, 예술가들이랑 얘기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만남도 가지고, 같이 큰 판도 벌이고자 했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성하는 데는 꽤 큰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회원들이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면 돕겠다고 해서 기부를 많이 해주셔서 만들어 낸 거죠.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도 궁금해요.

이 공간을 조성하면서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공간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마음과 돈, 노동력을 총동원해서 직접 칠하고 붙이고, 극장 같은 경우에는 객석 자리를 전부 다 나무 잘라다 만든 공간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약간 허술한 데가 있어요. 허술하지만, 피와 땀이 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포인트입니다.

굉장한 노력을 들여 공간을 조성하셨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어려운 점에 부딪히기도 할 것 같아요.

단원들이 경제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게 어렵죠. 그리고 공연 한다는 것은 수익 사업이 되기 어려워요. 보통의 극장들처럼 선불 티켓을 사고 보는 게 아니라 감동하신 만큼 '감동 후불제'로 받는데 아주 적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어려워졌을 때 비대면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영상 공부와 영상 장비 사들여서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공연을 계속 이어갔어요. 관객 없이도 이 무대를 지켜나가 보자는 생각이었죠. 비대면으로 기반을 구축해 놓으니까 여기가 지역 예술단체들이 생겨 날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되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기점으로 많은 예술단체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각자 어려운 게 있으면 여기서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게끔 논의도 하면서, 지역 안에서 연대의 새싹을 움트게 했죠.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에요. 처음에 객석을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방석을 쪽 깔아놨더니 동료 예술단체 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 쿠션을 따로 깔아 주시기도 하고 스크린을 후원해 주시거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역의 다른 예술 단체들과 연대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시는군요. 지금까지 '살판마을극장'에서 정말 많은 공연을 올리셨을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을까요?

세월호참사 피해자 학생들의 어머님들이 연기 하시는 '노란리본극단'의 연극을 진행했어요. 극 이름은 <연속극>이었는데 당일 오자마자 연극 시간이 2시간이 넘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등받이도 없는데 2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어머님들이 한 장면씩 이야기하듯 공연하니 엄청나게 울고 박수갈채가 나오고, 2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좋았어요. 이 공간에서는 무대와 관객이 가까워서 훨씬 더 배우들의 호흡과 교감을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감정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는 호흡들이 그때 마다 느껴지니까 관객들이 울림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올해도 새로운 세대와 함께 기억의 재순환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서 또 함께 손뼉 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고 연대하며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간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살판협동조합'의 뿌리가 풍물이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죠. 풍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대관을 통해서 연극
워크숍도 할 수 있고, 국악 앙상블 팀이 와서
연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살판마을극장'을
어떻게 확장하고 싶으신가요?

다양한 감성과 방법으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것이 바로 공연예술이라 생각
해요. 그래서 지리적, 경제적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공연하거나 감상하며 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창작공간이자 무대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과 음향 장비, 무대, 객석까지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대,
음향, 조명의 쓰임새에 대해서 같이 보고
워크숍도 진행해 보는 것이 <사이공간> 사업의
목표입니다.

문화도시는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복합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요.
시민들에게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니 공연,
문화, 음악, 춤 어떤 장르든 간에 시민들이 같이
누리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이 윤병은
인터뷰어 글 사진 김예겸
편집 박예은 이규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하는 예술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슴이 울리는 북을 함께 치며, 삶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즐겁게 어울려 사는 세상. 바로, 살판이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세상, 살판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과 '살판마을극장'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살판나는 세상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살판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같이 만들어요.

주인장 윤병은

윤갤러리



의정부동에 있는 개인 갤러리 ‘윤갤러리’에서는 그림그리기부터 토론, 미술 상담 치료까지 예술을 배경으로 폭넓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윤갤러리’를 운영하는 윤애경 주인장은 이곳에서 정규 수업과 단체 모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작품 판매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주인장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윤갤러리’를 그림과 글이 있는 자유로운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목표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예술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열정 또한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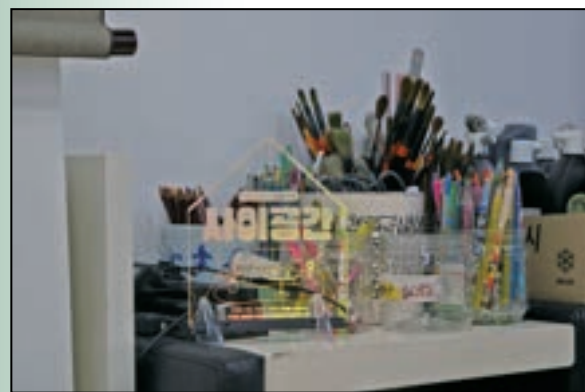




윤애경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20년 동안 일산에 있는 백화점에서 개인 갤러리를 운영했어요. 의정부에 터를 잡고 있으니 늦기 전에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여기로 들어온 지 10년 정도 되었어요. 글과 그림도 가르치고 미술 토론도 하면서 누구나 함께하는 갤러리로 발전시키는 게 소망이에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어요. 올해 4월에 시청 시민갤러리에서 '캘리랑 펜화랑' 개인전을 열었고, 올해 9월에는 '람석윤애경 주인장의 호 윤애경 개인전'을 열어 수묵화와 족자 캘리그래피를 전시했어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의정부가 문화적인 부분에 취약했어요. 그림 그리는 학생들도 외부로 나가고, 갤러리가 생겨도 오래 버티지 못했죠. 그래서 일산 신도시까지 매일 왕복 2시간 반 걸려서 출퇴근하며 활동했죠. 꿈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50대에 들어서니 정형화된 백화점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동안 쌓은 비결로 자유롭게 특색 있는 갤러리를 운영하기 위해 의정부로 들어오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윤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19년이 걸렸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며 힐링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가치관이 공간에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열정을 잃지 말고 살자는 것과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는 가치관을 반영하려고 했어요.



'윤갤러리'를 조성하며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신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공간을 만들며 환경 조성에 많이 신경 썼어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야외에도 전시하여 공간과 작품을 알리고, 배움이 있는 쉼터로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움직이는 갤러리, 꿈이 있는 갤러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작품 전시를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전시된 글을 바꿨어요. 또, 일산에서는 그림을 주로 다뤘는데 의정부에 와서는 글을 통해 그림을 다루고 있어요. 그림은 눈을 즐겁게 하는 힘이, 글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요. '캘리랑 명화랑'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공책 표지에 캘리그래피를 직접 다 썼어요. 정성껏 글귀를 쓰며 함께 즐겁게 수업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지요. 이곳에 와서 꼭 뭘 배우지 않아도 여러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림과 글을 감상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캘리그래피 작품을 걸어둔 족자예요. 공간에 오는 분들이 글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족자 캘리그래피를 전시해 두거든요. 살면서 힘들 때 책과 글을 통해서 에너지도 많이 얻었고 힐링도 했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매일 하면 누구나 힘이 들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책을 읽으며 힐링하다가 어느 날 책 속에 있는 글로 작품을 만들어 공유했더니 다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글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며 손글씨에 마음이 담기는 것이 신비롭게 느껴졌나 봐요. 이렇게 글과 그림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멋진 갤러리를 운영해요.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운영을 위해서는 홍보가 꼭 필요한데, 홍보가 어려워요. 저는 전업 작가이자 프로 작가인데 공간 운영을 하려면 작품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병행해요. 작품 활동만 하면서 오래 견디기는 힘들어요. 공간 운영 지원을 받으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안타까워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지원을 통해 여기서 문화 수업을 하고 싶다고 의정부시의 문을 두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미술 분야는 아직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직접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자나 일화가 있으신가요?

미술 치료를 하러 오는 초등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수업이 없을 때 문 앞에서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학교 갈 시간인데 왜 여기에 있는지 물었더니 사패산에 갔다 왔대요. 어린 아이가 사패산 정상까지 3시간 동안 다녀왔대요. 그 학생이 틱장애가 있는데, 늘 소외감이 들고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유일하게 저한테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이야기를 못 했대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개미도 있고 벼지이도 있고 수많은 존재가 있다고, 다 각자 할 일이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며 희망을 품자고 하며 다독였어요. 그날 이후 그 아이를 못 만나다가 한참 뒤에 길을 걷다가 누가 인사를 해서 보니까 그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니 “선생님, 저 지금 좋아요.” 하고 지나갔어요. 다른 얘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잘 있구나 싶었던 기억이 나네요.

‘윤갤러리’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면 가장 적합할까요?

그림 그리고 글도 쓰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만들고, 뭐든지 다 좋아요. 전시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오픈하려고 해요. 좋은 장소와 재료, 환경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수업 시간 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을 오픈할 계획이에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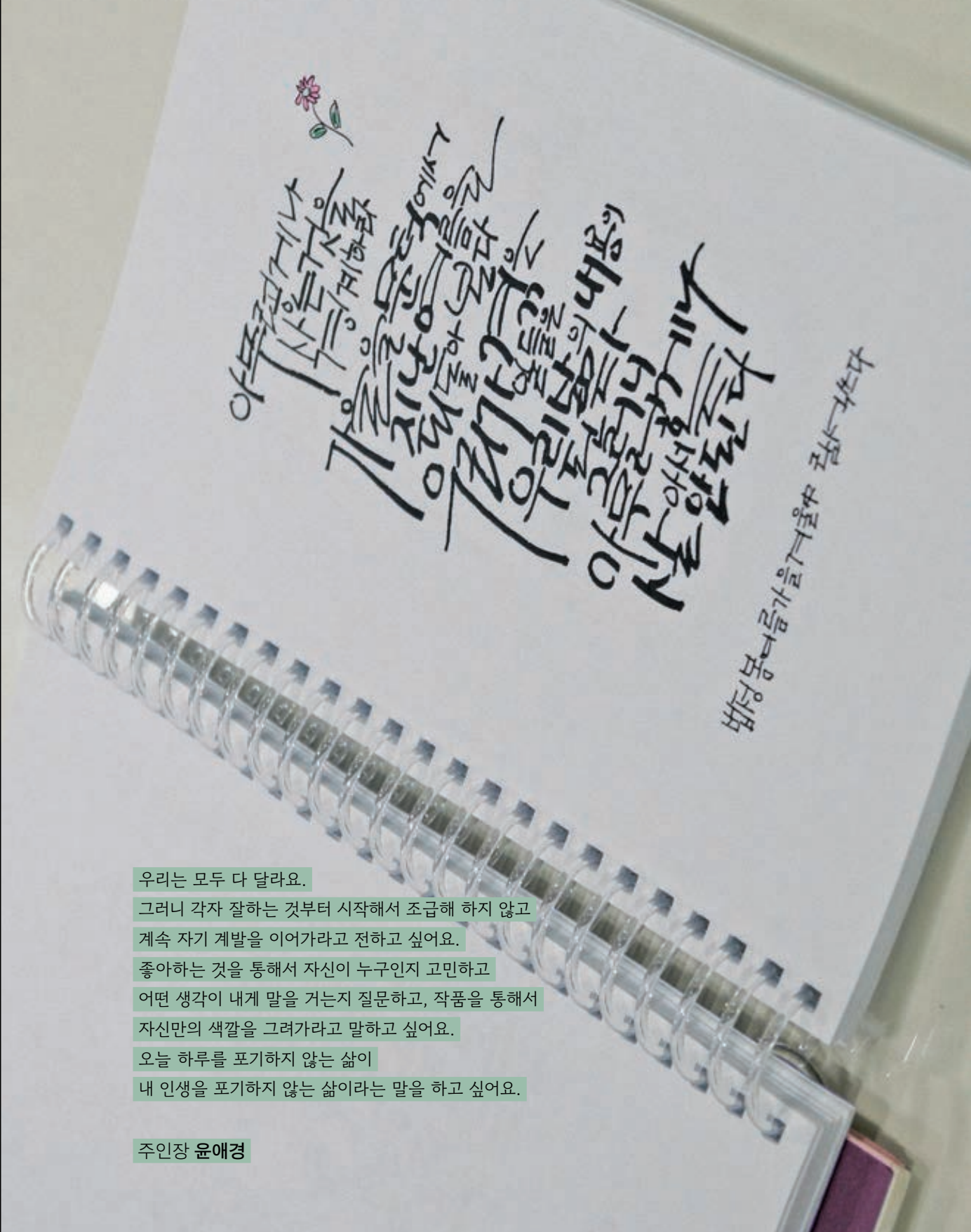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제 작품과 시민의 작품이 함께하는 공간, 그림이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요. 여기서 작업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와서 함께 글을 쓰기도 해요. 꼬맹이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글씨를 쓰고 여기에는 그림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알려주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갤러리로도 발전시키고 싶어요.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이 공간은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해요. 여기서 작품을 새로 만들고 나면 자꾸 들어와서 보게 되고, 설레는 마음이 생겨요. 또, 제 색깔을 나타내는 저만의 세계이자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 분신 같은 공간이죠. 여기에 제가 없어도 제 색깔이 보이는 게 중요해요. ‘람석’이라는 호만 남아도 저를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인터뷰이 윤애경
인터뷰어 글 강세인

사진 이규빈
편집 박예은 이규빈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그러니 각자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계발을 이어가라고 전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어떤 생각이 내게 말을 거는지 질문하고, 작품을 통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그려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주인장 윤애경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나 열려있는 문화식물카페

#문화공연카페

#식물카페

#힐링공감카페

빛뜨레커피

‘빛뜨레커피’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식물 카페다. 홍정한, 장미혜 주인장은 햇볕이 따뜻하게 짝 들어오는 느낌을 연상하며, 빛이 뜰에 들어온다는 의미로 이 공간의 이름을 ‘빛뜨레커피’라고 지었다. 또한 공간의 이름과 같이 창문을 크게 뚫어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했다. 이 공간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물 1층은 문구점, 2, 3층은 카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정환 처음에는 1층 공간에서 컴퓨터 복사기, 사무기기 총판 대리점을 했어요. 의정부에 있는 웬만한 관공서는 전부 담당했죠. 나이가 들면서 문구점으로 전향했어요. 재미도 있고 돈도 좀 벌겠다 싶었거든요. 문구점도 복사기를 사용하니까 자연스레 그쪽으로 가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내리막길을 걷고,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 카페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빛뜨레커피'를 열게 됐어요. 우리가 식물과 카페를 좋아했거든요.

카페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진짜 힘든 일더라고요. 나는 식물이나 가꾸고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운영만 해도 너무 바쁜 거예요. 살기는 해야겠으니까 붙어서 하고 있죠. 처음에 아내가 카페를 한다고 바리스타 1급까지 따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아, 나이 먹어서 무슨 바리스타야. 젊은 사람들 뽑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는 딴 걸 해야지.'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죠.(웃음)

장미혜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오시는 분마다 제안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공간에서 전시나 모임 같은 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좋은 제안 같아서 여러 번 같이 기획하다 보니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지금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죠.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홍정환 누가 와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어요. 우리 둘이 카페를 다니면서 어떤 게 좋은지 많이 보고 공간에 적용했죠. 제일 좋은 건 식물인 것 같아요. 조화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에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식물이 2층, 3층을 합쳐 500그루가 넘어요.

장미혜 지금은 공간에서 공연을 자주 하지만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재즈를 하시는 분이 카페를 방문하셨어요. 공연할 곳이 없는데 카페가 마음에 든다고 여기서 하고 싶다더라고요. 처음 공연을 진행할 때는 공연자가 장비를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장비 끌고 3층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구비해 두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 장비를 장만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했는데 파급효과가 크더라고요. 공연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더 빛뜨레'라는 작은 음악회를 하게 됐고요.



홍정환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음악도, 공연도, 뮤지컬도 좋아해요. 내 공간에서 언제든 공연을 열고 진행하는 걸 가까이서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출할 곳이 없었겠다, 힘들었겠다. 평상시에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공간의 특징으로 삼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집중적으로 구성해 본 거죠.

장미혜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장비를 사게 되고 공연운영회도 꾸려지고요. 운영진들도 공연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단체도 등록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가치관을 잘 반영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유일무이한 공간이 됐고, 우리도 너무 즐거워요.

500그루가 넘는 식물을 관리하시려면 공간을 조성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셨겠어요.

홍정환 식물을 위해 공기 순환이 잘 되게 천장도 높이 하고 폴딩을 크게 했죠. 통창으로 벌이 잘 들게 하고 3층 바닥에는 식물의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도 돼요.

식물을 전부 가꾸시니 공간에 대한 애정도 더 커질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홍정환 테라스에 있는 정원을 제일 좋아해요. 실내에 있는 식물은 대부분 화분이라 바깥에는 흙으로 된 정원을 만들었어요. 나만의 정원 같은 느낌이라 기분이 되게 좋아요. 꽃은 한 철이니까 2~3개월 되면 다른 꽃 심어주고요. 계속 신경을 써야 해서 애정이 더 많이 가요.

공간 운영만 해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어요.

홍정환 일단 돈이 안 돼요.(웃음) 몸이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근데 공간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되고, 우리 공간만의 특징들이 자리잡혀 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희망이 생긴 거죠. 찾아주는 손님도 많아지고요. <사이공간> 사업에 선정됐을 때 O.T에 가서 '빛뜨레커피'라고 했더니 다들 아시더라고요.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알아봐 주시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장미혜 사실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어요. 쉬엄 쉬엄 여유롭게 즐기며 살아갈 나이인데, 카페를 운영하니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한 층이면 덜 힘들 텐데, 두 개 층이다 보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과 희망이 있어요.



공간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무엇인가요?

홍정한 최근 SBS <생방송 투데이>에 나왔어요. 폴피리 부는 분이 여기서 공연했거든요. 그분이 방송에 섭외됐는데 촬영 장소가 미정이었어요. 근데 3층에 올라가시더니 여기서 싶으셨나 봐요. 그 자리에서 바로 PD님과 연락해서 여기서 촬영 하겠다는 약속을 잡았어요. 외관부터 실내까지 방송에서 짝 비춰주고... 너무 좋았어요.

‘빛뜨레커피’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정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는 분들을 보면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만 모임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꾸 모여서 활동하려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장미혜 2층 안쪽에 창고가 있는데 이 공간을 열어서 공방을 만들려고 해요. 3층에서는 문화 공연을 하고 2층에는 공방을 만들어서 뜨개질, 꽃꽂이, 붓글씨 등을 할 수 있게요.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간에 구성에 대한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걸 듣고는 무조건 우리 공간에 반영 하겠다고 했고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좋아서 하고 있어요.

홍정한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연을 열고자 해요. 작년에는 캘리그라피 작가와 함께 기부 바자회를 했는데 공연도 여러 번 하다 보니 짜임새가 잘 형성되어서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차 한 잔과 다과, 그리고 공연을 곁들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연을 준비 하고 있어요.

우리 공간에서 매일매일 뭔가가 이뤄지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점차 늘어나서 오기만 하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 될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요. 뭔가를 펼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활동할 수 있는 고정적인 자리를 열어줄 수 있고, 문화 활동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공간이 될 테니까요.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홍정한 여기는 우리의 일터잖아요. 나이도 들고, 운영하는 게 하나하나 어렵기는 해도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빛뜨레커피’만의 문화가 좋아서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만의 놀이터’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이에 나만의 놀이터가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내 놀이터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가 막힌 장소가 된다면 너무 좋죠. 아무리 힘들어도 늘 희망이 있어요.

인터뷰이 홍정한 장미혜
인터뷰어 글 김우락
사진 김우락 박예은
편집 박예은 이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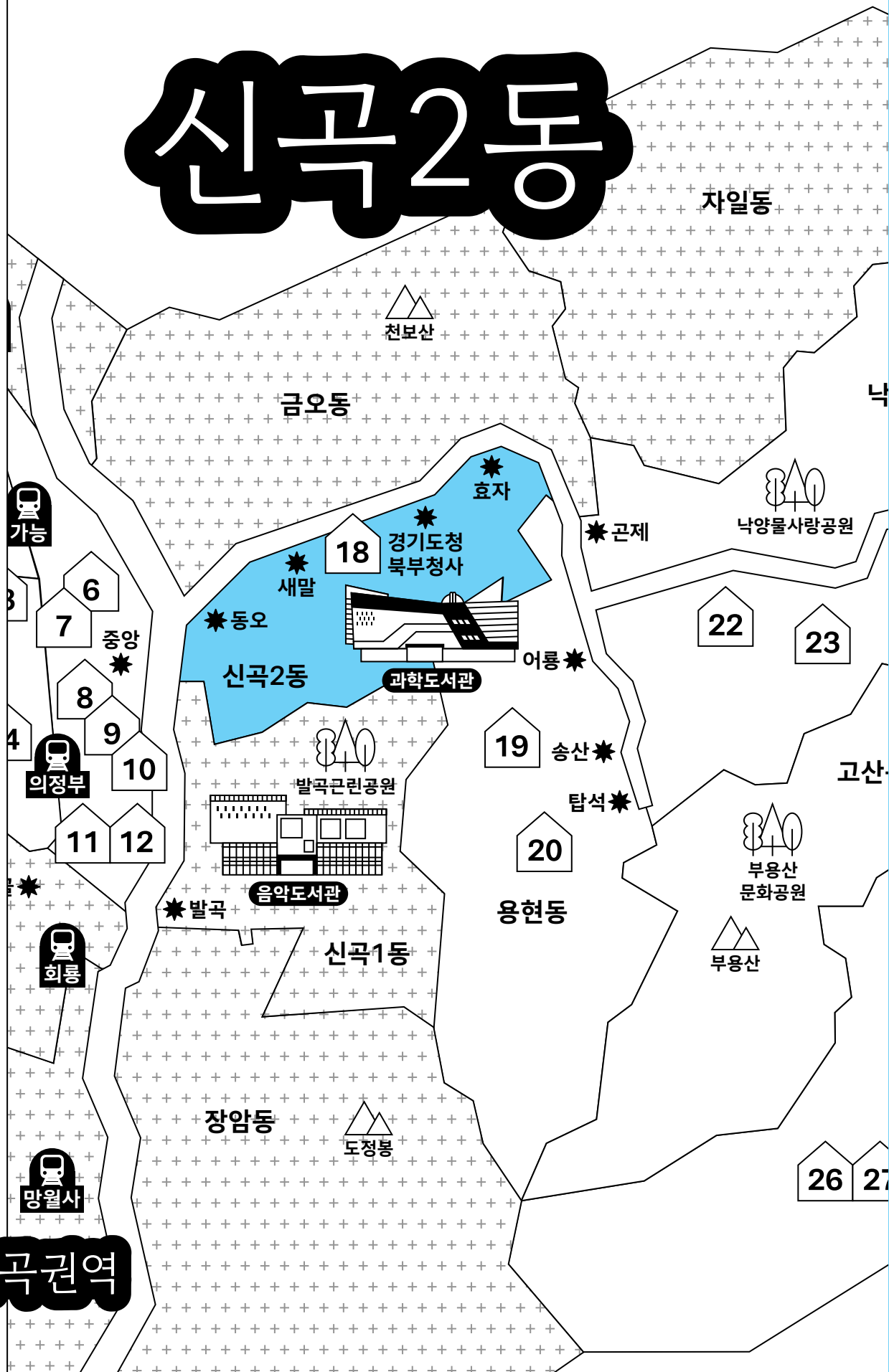


와서 편하게 쉬고, 즐기고 가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서 나도 카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하고 싶으면 상담하러 오세요.
현실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리로 오셔서
차 한잔 하며 쉬고, 즐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앞으로 ‘빛뜨레커피’는 매일매일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테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주인장 **홍정한 장미혜**

신곡2동

Singok 2-dong, Uijeongbu-si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 새말역, 경기도북부청사역, 효자역을 아우르는 신곡2동은 추동공원과 부용천 사이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유독 많은데, 특히 꽤 오래전에 지어진 옛날 아파트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담벼락이 낮아서 학교가 끝난 오후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 단지, 저 단지를 오가며 놀이터 탐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것만 같습니다.

신곡2동의 <사이공간>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공간의 쓰임과 모습이 달라지는 자유롭고 친절한 공간입니다. 공간의 주인장은 사람들이 각자의 색을 덧바를 수 있도록 비어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공간에서 마음껏 수다 떨며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간에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과 애정이 곧 공간의 정체성인 신곡2동의 <사이공간>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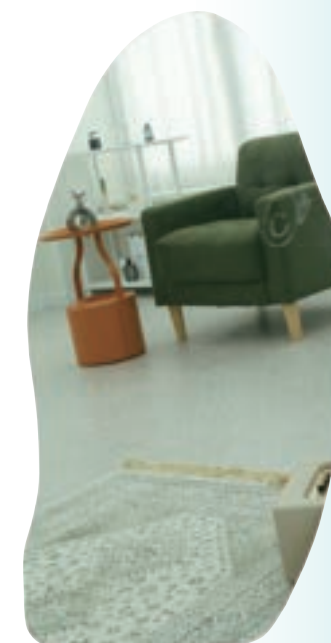
신곡권역

스튜디오 떠오름



‘스튜디오 떠오름’은 사진과 영상 촬영 등의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렌탈 스튜디오다. 여승현 주인장은 이곳을 많은 사람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공간 이름에 주인장의 이름 중 성씨도 돌림자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인 ‘승’ 자를 우리말로 풀어낸 단어 ‘오름’을 담았다. 해가 떠오르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느낌과 공간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떠오름’이라는 이름을 짓고, 산 위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의 로고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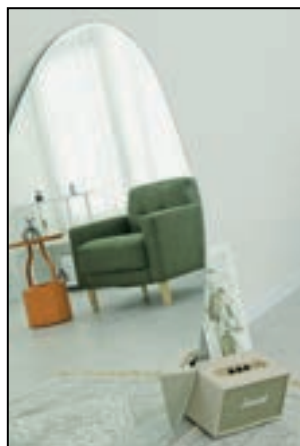
주인장은 ‘스튜디오 떠오름’에서 이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색깔을 넣을 수 있도록 가변성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흰색 벽과 비정형 거울 등을 통해 깔끔하고 도화지 같은 공간을 느낄 수 있다.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영상 관련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간을 대여해서 촬영한 경험이 있어서 렌탈 스튜디오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죠. 공간 대여업이 인풋은 적으면서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항상 적은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기를 바랐기에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튜디오 떠오름’ 공간을 만든 이후에 의정부로 다시 둘러보게 됐어요. 제가 한동안 의정부를 떠나 있다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살피며 의정부와 이 공간에 더욱 애정이 생겼어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나요?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본인의 색깔을 넣길 바랐어요. 아직 공간의 형태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가변성이 있는 촬영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개인적인 가치관을 빼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콘셉트가 많아서 인테리어 레퍼런스를 찾으며 고민했었는데, 공간에 직접 와서 보니까 채우기보다 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제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연 지 이제 막 6개월이 넘은 시점이라서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주인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구불구불한 모양의 거울이 있는 공간이 좋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러그가 마음에 들어요. 옆에 있는 건 선셋 조명인데, 저녁에 불을 끄고 조명을 켜면 석양빛처럼 보여서 거울에 빛을 쏘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존으로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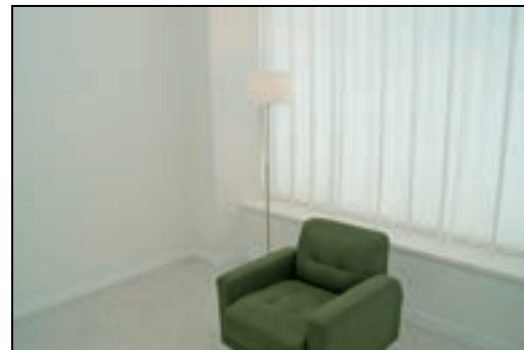
이 공간은 제 색깔을 빼는 작업을 많이 해서 도화지처럼 비워진 느낌이 나요. 조명도 지금보다 더 따뜻한 색이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새하얀 색깔로 교체했어요. 최대한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추가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제공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져와서 촬영하시지 않고, 깔끔한 상태 그대로 쓰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런 니즈도 있구나 싶어요.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적은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주야간을 거의 무인으로 운영 하는데 어떻게 깔끔한 상태로 유지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인풋을 적게 하는 것과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계속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간을 200%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촬영 공간으로 대여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모임이나 파티룸 같은 용도로도 확장하고 싶어요. 이용자를 늘리고 공간도 널리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이공간>에 참여하게 됐죠.



렌탈 스튜디오로서의 쓰임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문화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바라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사이공간> 사업으로 진행하는 ‘오름씨 네마음’ 프로젝트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큰 목적이 없는 친목 모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다과와 함께하는 친목 모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큰 목적은 친목이고 문화 활동이 곁들여 졌으면 좋겠어요. 영화는 소통의 수단이고요. 수다 떨기 위해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공간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2월에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사에서 촬영하러 오셨던 기억이 나요. 렌탈 스튜디오를 이용자와 연결해 주는 플랫폼에 이곳을 등록해 놓았는데, 원하는 조건에 충족되었는지 공간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매체에 내 공간이 사용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공간의 쓰임을 더 넓게 생각하게 된 경험이었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을 촬영하러 온 이용자도 기억에 남아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들 친절하시지만, 그분은 특히 더 친절하셨어요. 문자로 공간에 대한 좋은 점과 잘 이용했다는 인사를 남겨주셔서 감동했어요. 그런데 근처 카페에서 문자 답장을 드리다가 민망하게도 그 이용자분을 마주쳤어요.(웃음)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스튜디오 떠오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사이공간>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공간을 거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이공간> 목적에 부합하는 거점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길 바라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의정부 내에서 사업을 확장해 여러 스튜디오를 열고 싶어요. ‘떠오름’이라는 이름으로 의정부에서 여러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민락동, 고산동에서 의정부역까지 거리가 먼데, 신곡동이 중간쯤이라 여기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점이 여러 군데 있으면 이용자가 가까운 곳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심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편안한 공간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목표를 위해 <사이공간> 사업에 참여하며 첫 단계를 시작했어요.

나와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자유, 자연, 연대’라는 단어로 저를 표현하고 싶어요. 제 지향점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잃은 게 연대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느슨하든 촘촘하든 계속 연결되는 감각을 갖길 원해요.

공간은 ‘편안함, 떠오름, 깔끔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이 모든 분들께 편안한 공간이 되길 바라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혼자 와서 책을 읽어도 좋겠어요. 공간을 구상하면서 제 별명인 ‘오름’을 사용하기 위해 ‘떠오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해가 떠오르는 것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연결 지은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듯한 따스한 느낌과 매일 뜨는 해처럼 계속 희망을 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이 공간이 빈 도화지 같은 공간이라 그 안에서 좋은 생각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깔끔한 이 공간을 편안하게 사용하며 원하는 것을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여승현

인터뷰어 글 사진 강세인

편집 박예은 이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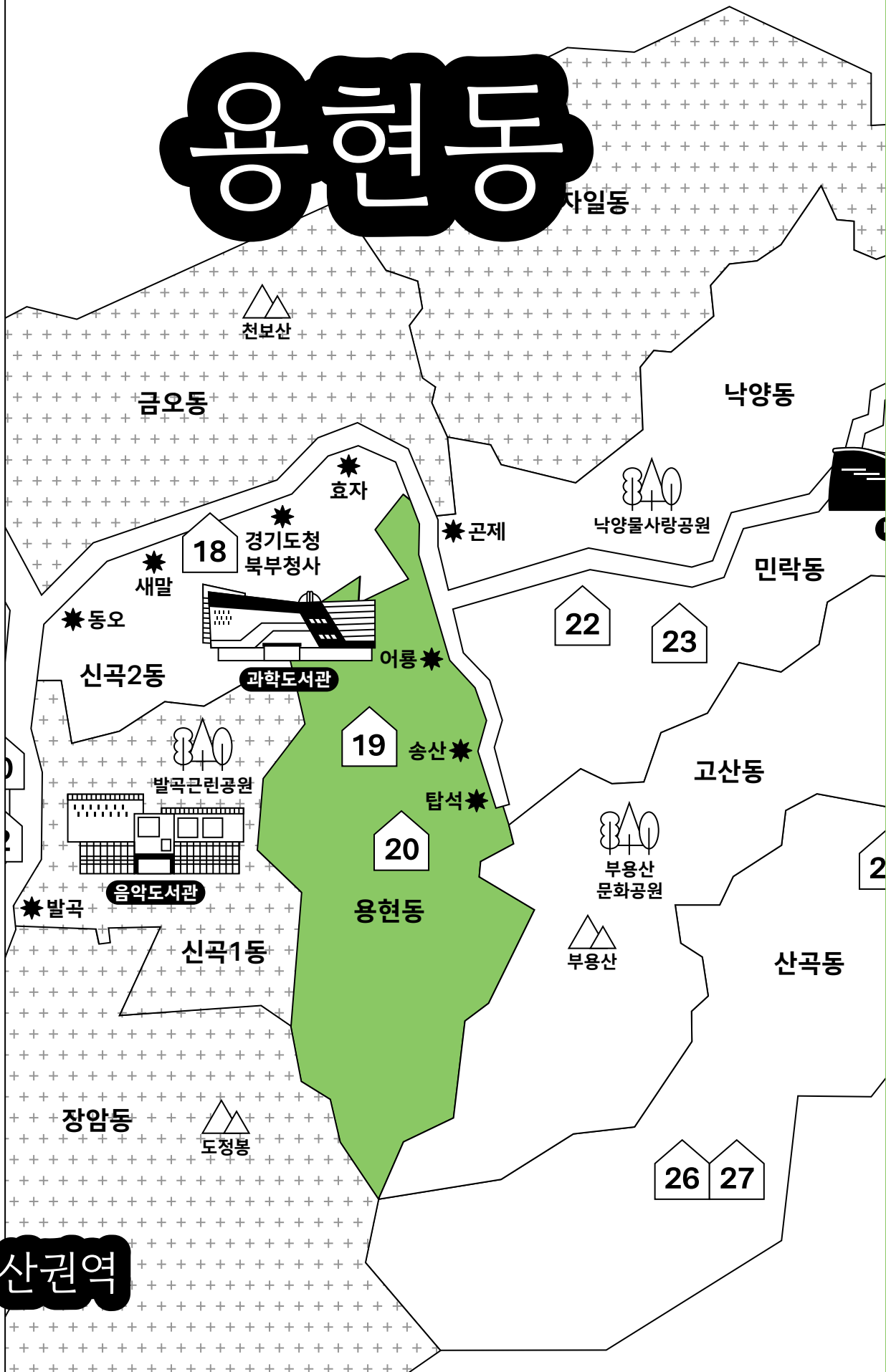
도화지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드릴 테니 오셔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펼치며
다양하게 활용하길 바랍니다.

주인장 여승현

용현동

자일동

Yonghyeon-dong, Uijeongbu-si



신곡2동의 부용천 산책길을 따라 쪽 걷다 보면 용현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용현동에는 '만가대'라는 이름의 동네가 있는데요, 옛날의 용현동에는 집을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집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가대^{滿家臺}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모여 있는 풍경을 보면, 지금도 사람 사는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용현동의 <사이공간>에서는 시간이 느긋하게 흐릅니다. 뭐든 가득, 넘치게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편안하게 스스로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을 비울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향기로운 차와, 긴 호흡으로 무겁고 찌뿌둥했던 생각을 내려놓은 후, 진정으로 필요한 것으로 새롭게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용현동의 <사이공간>을 소개합니다.

송산권역

산야요가



창을 통해 보이는 부용산 풍경. 등을 켜지 않아도 밝고 따뜻하게 내려오는 햇빛.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반겨주는 이곳은 용현동의 요가 스튜디오 '산야요가'다.

'산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인 '순야'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한대의 공을 의미한다. 비어있음과 동시에 무한함을 의미하는 이름처럼, 이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우길 바라는 강은실 주인장과 만났다. 빠르고도 느리게 변해가는 계절 같은 감정에 힘이 들 때, 이 고요한 공간에 들어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어떨까?





산야의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서울에서 수업할 때는 워크숍이나 좋은 수업들이 많이 열렸어요. 근데 의정부에는 많지 않아서 좋은 수업을 의정부로 가져오고 싶었죠. 의정부에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련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도 필요했고요. 사실 여기서 보이는 부용산에 꽃혔던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부용천이 있으니까, 건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뷰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해 여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이 뷰를 많이 좋아해 주세요. 저녁에도 예쁘거든요. 수업 시작할 때 앞에 있던 달이 끝날 때쯤 산을 넘어가는 게 보여요. 한 번씩 회원님한테 저 달을 보실 수 있게 자세를 잡아 드리기도 합니다.



용현동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산야’를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단어의 뜻처럼 스스로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님께 직업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저한테는 똑같거든요. 그저 얘기를 귀담아들어요. 어떤 모습이어도 같으니까요.

요즘에는 직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20대에는 뭐가 꼭 돼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하고, 꼭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뭐가 안 돼도 결국 나 자신이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르고, 흐르다 보면 길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가와 삶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가를 하면 매트 안에서의 마음가짐이 밖으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앉아서 자신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하면 좋아하는지, 힘든 동작할 때도 끈기 있게 하고, 어떤 때는 물러나기도 하잖아요. 나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잠자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같은 건 다 차단하고 나서 가만히 호흡하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을 조성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채광과 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요가도 호흡으로 맞닿는 것이니 편하게 호흡하려면 환경 조성이 잘돼야 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창으로 바꿨어요. 부용산이 예뻐서 가려져 있기엔 너무 아쉬워서 바꾸니까 개방감도 생기고 훨씬 좋더라고요. 봄이 되면 벚꽃잎이 날려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봄에는 꽃잎을 보고, 여름에는 푸릇푸릇한 잎을 보고, 가을에는 산이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일렁일렁 눈꽃이 춤추는 것도 보여요. 계절을 다 볼 수 있어요.

주인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오시는 분들이 좌식 공간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겨울에는 차도 드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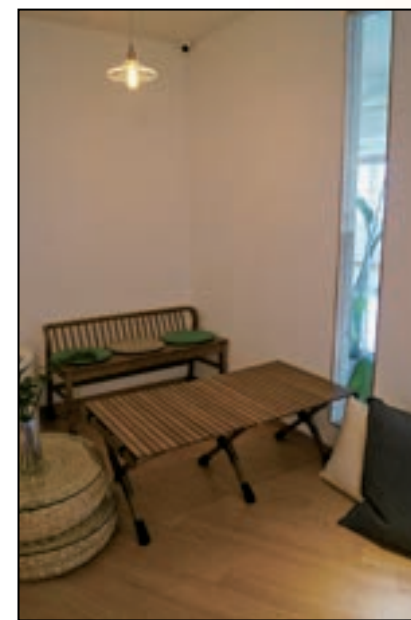
그리고 뒤쪽 창가가 수업할 때 바라보면 좋아요. 경전철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소도시에서 전철 지나가는 것 같기도, 미래의 도시 같기도 해요. 경전철을 같은 높이로 바라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재미있게 느껴져요. 부용산만 보고 저곳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예쁘더라고요. 경전철이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조명이 켜진 채로 지나가는 모습이 멋있고 좋아요.



산야요가

운영의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홍보가 잘되지 않아요. 의정부 내에서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의정부는 전단으로 광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하고 나서 새벽에 전단을 직접 붙여 봤어요.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게, 내 집 문에 테이프 자국이 있으면 화날 것 같은 거예요. 붙이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회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원장님은 왜 안 붙이시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시나요?

가족 단위로 오시기도 하고, 집중력이 높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70대이신 분도 계세요. 처음에는 팔이 안 올라가셨다가 지금은 다양한 동작을 잘하세요. 꾸준히 함께 성장하실 수 있는 분들. 이 공간과 인연을 맺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수업을 진행해 오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방문자가 있을까요?

제가 홍대에서 수업할 때 오셨던 분이 여기까지 오시곤 해요. 수업 1시간을 들으시려고 먼 길 오시는 게 정말 고마워요. 눈이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어김없이 오셔서 감사해요.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아는 게 없어서 책으로 계속 공부했구요. 첫 수업을 하러 갔을 때 집중력이 정말 높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귀를 열고 들으세요. 처음 요가를 배우신다면 동작을 눈으로 봐야만 옳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듣고 집중하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수업을 하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좋았어요. 수업을 하고 올 때면 요가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 요가로 연결되면서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바자회도 열어 회원님들 간에 나눔과 기부로 모은 기부금을 다시 복지관에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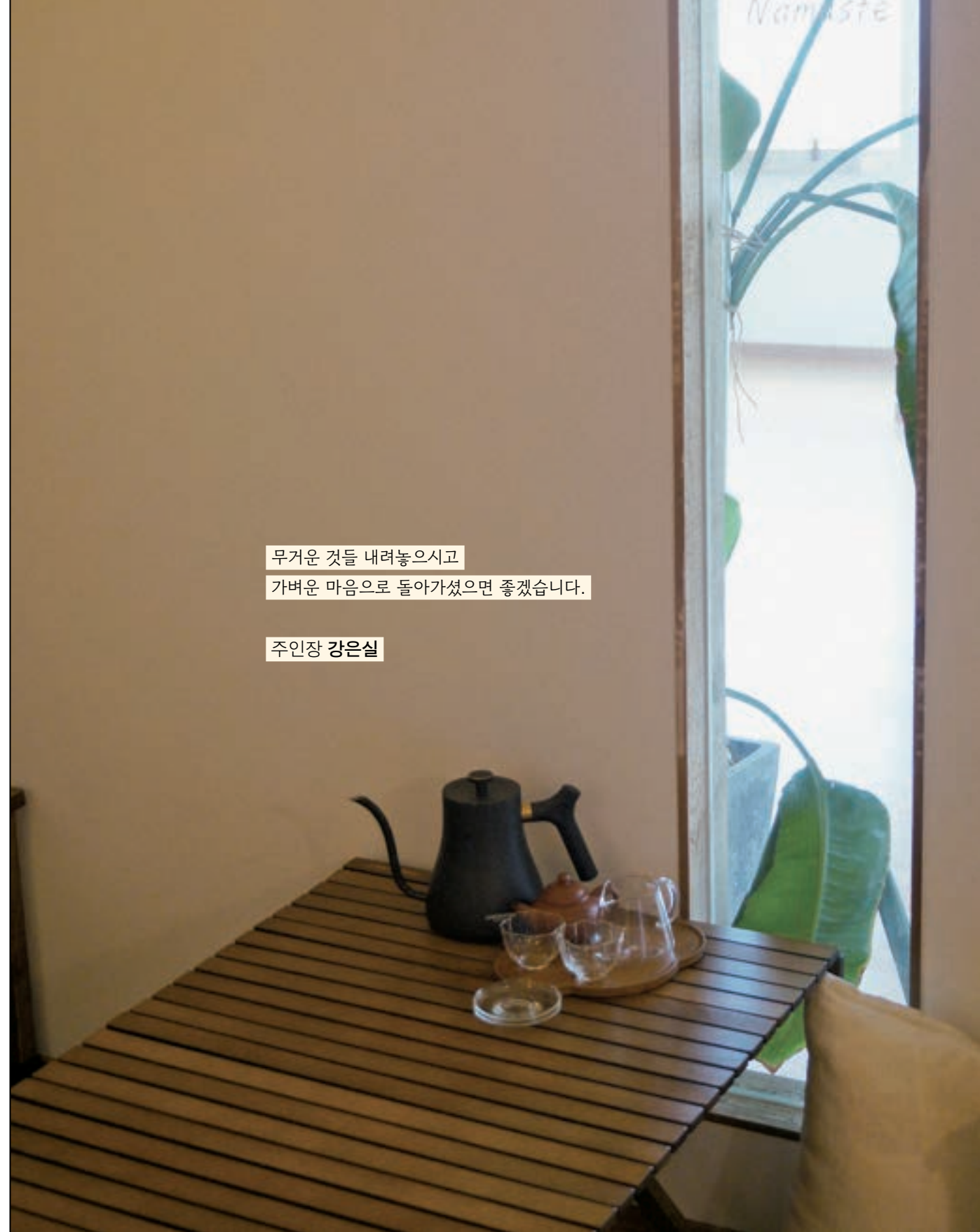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산야요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지금처럼 따뜻한 공간으로 남고 싶습니다. 반겨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게요. '오늘 하루 힐링이 된다.', '여기 와서 힐링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오롯이 혼자 설 수 있게 단단해질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고 싶어요.

이전부터 공간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이나 전시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움직임을 주제로 해서 춤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연결하고 싶어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요가원을 다닌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는 공간에 한 번 와볼 수도 있잖아요. 초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사이공간>에 참여하면서 저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의정부의 많은 공간들과 협업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확장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혼자 알아서 찾아서 다른 분하고 같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이공간>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이신 분들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인터뷰이 강은실
인터뷰어 글 사진 김예겸
편집 박예은 이규빈



무거운 것들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장 강은실

화차마루



‘화차마루’는 꽃과 차를 즐길 수 있는 용현동의 찻집이다. 이미경 주인장은 차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이곳에서 꽃과 차를 함께 다루고 있다. 주인장은 아침에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정해진 메뉴가 아니더라도 신선한 과일 등 차와 함께 곁들이기 좋은 것을 준비해 출근한다. 기분 좋은 차 향기, 싱그러운 식물들과 더불어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페라, 클래식, 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음악 연주회다.

‘빨리빨리’ 하며 바쁘게 지내더라도 ‘화차마루’에 와서는 여유를 가지고 차를 마시며 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주인장의 이야기에서 차를 매개로 사람들에게 여유와 문화를 전하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 차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차를 블랜딩하는 일을 했어요. 티마스터자격증도 있고요. '보이차 방', '우롱차 방', '녹차 방' 이렇게 차 이름의 방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런 공간을 운영하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함께 기획한 정기 음악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나요?

요즘엔 다들 '빨리빨리' 하며 바쁘게 지내서 여유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화차마루'에 왔을 때 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으면 해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종교 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침에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싱싱한 과일 같은 걸 준비해 와요. 정해진 메뉴가 아니더라도 손님한테 차와 함께 맛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요. 오픈 시간은 10시지만, 일찍 나와서 화초에 물도 주고 음악도 틀고, 이런 저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 책도 보고 그래요.



공간을 조성하며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너무 급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유를 즐기며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차가 약은 아니지만, 컨디션에 따라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쌍화차와 대추차를 달여요. 다른 카페에는 달콤하고 시원한 차가 많지만, '화차마루'에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하루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공간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무엇인가요?

또, 다른 카페에서는 오래 있으려면 두세 번씩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차가 있으면 보이차를, 우롱차가 있으면 우롱차를 가져다드리며 마셔보도록 해요. 추운 겨울에는 유리 주전자를 따뜻하게 해서 올려 두고 차 한 잔을 주문해서 마시더라도 여러 차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손님들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다른 카페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10명 정도 한 팀이 오면 그분들만을 위해 다른 손님을 받지 않기도 해요. 그분들이 이야기 나눌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면, 오롯이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물론 매출을 올리기 위한 운영도 해야 하지만,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해요.

운영의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처음엔 금오동에 비즈니스 룸이 있는 찻집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많이 안정됐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웠는데, 이제 다시 모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쯤 인원 제한 없이 모여서 음악회를 했어요. 여기에 40명에서 50명이 와서 편안히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는데 83명이나 와서 자리가 좁은 데도 앉아서 음악회를 봤어요. 많은 인원이 왔음에도 부족함 없이 음료를 만들어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외에도 음악회를 하면서 좋았던 일화가 많이 있어요. 송년 음악회를 하며 오페라 공연을 한 기억도 나네요. 오페라 공연하는 분이 관객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하며 함께 공연하고 저희 가게 메뉴인 덤섬도 드시고, 참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소화가 잘 안되고 두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다른 카페에서 달콤한 음료만 마시다가 여기 와서 보이차를 마셔보겠다고 하셔서 다도를 조금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보이차를 한 번 마시고서 다음 날부터 소화도 잘되고, 머리 아픈 것도 좋아 졌다면서 그 이후로 단골이 되어 보이차를 마시러 오세요.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머물기
좋은 공간이면서, 공연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언제는 홍대 앞에서 버스킹을 하는 분들이 공연 하러 오셨어요. 노래도 부르고 바이올린에 기타, 드럼 연주까지 하니 관객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클래식 공연을 할 때는 조용한 분위기로 관람 하는데,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은 다음 공연 일정을 물을 정도로 기대하더라고요. 음악회를 하며 이렇게 장비를 갖춰 놓으니까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지원한 분도 계세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화차마루’를
어떻게 확장하고 싶으신가요?

‘화차마루’가 너무 좋으니 2호점을 내보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주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에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 코스에 넣어서 ‘화차마루’에서 연주회를 할 때 공간에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에서 나무와 풀을 많이 접하니까 차를 만들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이 공간은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랑방’ 같아요. 또, ‘꽃’과 ‘차’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화차마루’니까요. 그리고 오면 항상 즐거운 장소라서 ‘싱글벙글’이라는 단어도 고르고 싶어요.



인터뷰이 이미경
인터뷰어 글 강세인
사진 이규빈
편집 박예은 이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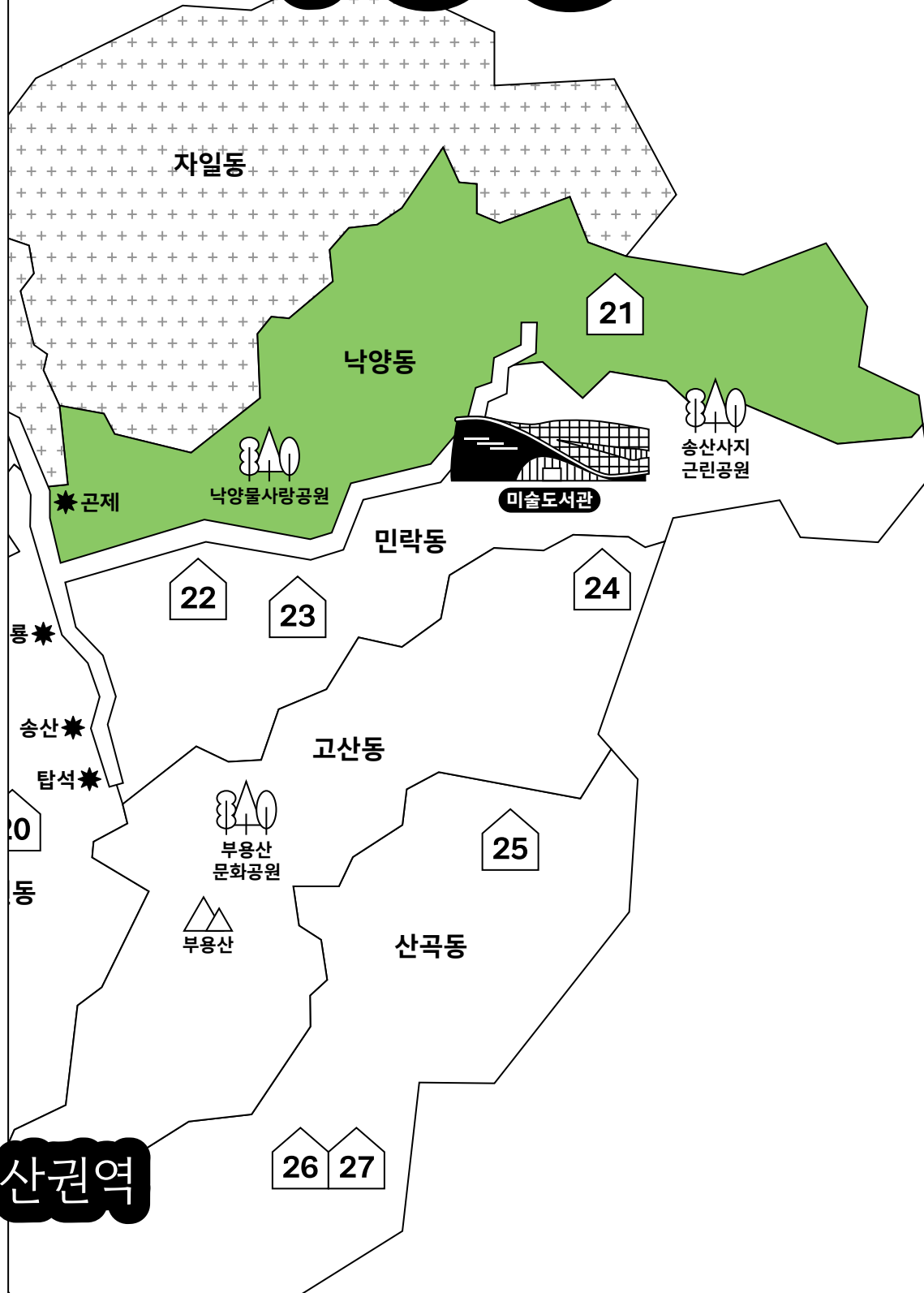


편하게 방문해서 차도 마시고
집처럼, 사랑방처럼 수도도 떨면서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장 이미경

낙양동

Nagyang-dong, Uijeongbu-si



처음 낙양동에 가보신다면 새로 지어진 높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에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숲의 틈 사이로 가족들의 다정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자로 잰 듯 반듯한 아파트 단지에 울퉁불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낙양동의 <사이공간>은 정해져 있는 모양 없이,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공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이자,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나 워크숍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간을 찾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할 일을 찾고, 이웃들과 협력하며 큰일을 해내고, 특기와 흥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나를 알아가고 효능감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낙양동의 <사이공간>을 소개합니다.

반딧불이 작은도서관



‘반딧불이작은도서관’은 낙양동 민락12단지 ‘라디언트캐슬’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다. 반딧불이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공간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한진희 주인장은 도서관에서 어린이가 마음껏 놀고 꿈꾸었으면 하는 마음에 도서관 내부에 미끄럼틀과 동그란 모양의 아지트 같은 의자를 설치했다. 시골벽적인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주인장의 바람대로 어린이들이 공간을 마음껏 누비고 있다.





한진희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법상 500가구 이상인 아파트에는 도서관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도서관은 이미 마련된 상태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지원했어요. 저는 이사할 때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지 살펴볼 정도로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미술도서관’이나 ‘송산3동작은도서관’이 생겼지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반딧불이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2020 경기도 의정부 작은도서관 시설 사업’을 하며 공간을 오픈했어요. 도서관 이름은 아파트 이름과 연관 지어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민 투표로 지었어요.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마음껏 놀며 꿈꾸고, 책을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되게 많이 다녔는데 어린이도서관이라도 도서관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조용히 해야 하고 뛰면 안 되는 도서관의 질서 때문에 저도 아이에게 뛰지 말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간을 즐길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그런 경험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반딧불이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어린이가 와서 마음껏 놀고, 보호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도서관 주변에 놀이터가 있으면 놀고 책 읽고 하며 독서를 놀이와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도서관 안에 미끄럼틀을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가 책 읽고, 그러다 지루하면 또 놀기를 바라며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 읽으려는 분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혼자 ‘미술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가기 어렵지만, 이곳은 혼자서도 쉽게 올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입구 맞은편에 있는 동그란 의자예요. 걸터앉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몸을 구부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크고 폭신한 등받이 의자는 작년에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수유실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분이 구비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라 다들 집에서 수유하고 와서 수유실에 있던 의자를 빼 뒀더니 아이들이 저기에 두세 명씩 앉아서 책도 보고 게임도 해요. 너무 판타스틱하게 앉아서 조만간 고장 날 것 같아요.(웃음) 저기 벽면에 붙인 ‘라디언트캐슬’ 글자도 몇 개 떨어졌어요. 너무 완벽하다면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붙이지 않았죠. 작은도서관이 정형화된 도서관의 틀에서 벗어난 걸 나타낸 것 같아요. 해석이 더 좋네요.

공간을 운영하며 어려운 점도 맞닥뜨리실 것 같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서 운영비를 아파트 관리비나 후원으로 받아요. 처음 운영한 동대표께서 운영비 규약을 잘 만들어 주셔서 소정의 운영비를 받고 있죠. 운영하는 데에는 부족한 돈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4년째 운영하고 있죠. 제가 봉사자인데 다들 공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운영자로서 애정을 쏟다 보면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데, 개인의 삶도 있다보니, 딜레마를 겪어요.

아파트 내부의 작은도서관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이라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아쉬워요. 이런 곳이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을 위해 공모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운영하며 사람들이 오도록 했어요. 작년부터는 어디 가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말도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시나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된 아이들은 혼자서도 찾아와요. 나이가 어리면 보호자와 함께 오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와 3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해요. 올해 들어서 토요일에도 문을 열기 시작하니 어린이가 아빠랑도 오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가 편하게 이곳에 오면 좋겠어요.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봉사자들도 주민이라서 다 내 아이의 친구잖아요. ‘반딧불이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오가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시는 만큼 일화도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그걸 오해하는 듯한 평가가 들려올 때는 의기소침해진 적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좋은 기억이 많아요. ‘반딧불이작은도서관’ 때문에 이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다는 분을 몇 번 만났어요. 이 도서관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여기서 봉사하시던 분이 프로그램 강의를 하기도 해요. 초등학교 때 이곳에 왔던 이용자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매개 역할을 했을 때 보람을 느껴요. 도서관에서 발견한 재능을 통해 다시 사회 진출을 하시고, 다시 도서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고. 선순환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간을 만들어 가고 봉사하며 성장한 것을 토대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공간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어린이 이용자가 많아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해요. 요리나 미술, 댄스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요. 원예나 라탄 수업 같은 성인 프로그램도 해요. 마을 공동체 모임인 '라디언즈'와 캘리그래피 모임, 독서 문화 프로그램, 강의도 하고요. 이곳에서 성인 프로그램을 하면 참가비가 비싸지 않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참여자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취미로 프로그램을 즐기다가 더 깊이 배워서 강사가 되기도 해요.

문화 활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돌봄 선생님은 이곳에서 요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아파트에서 떨어져 있으니 노래해도 소음이 되지 않고요. 생일 파티를 하려는 분에게 공간을 대여해드린 후로 여기서 생일 파티도 많이 하게 됐어요. 가구를 배치할 때 쉽게 밀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쪽 밀고 드론 수업도 했어요. 저 큰 스크린으로 영화도 봤어요. 뭐든지 꿈꿀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게 작은도서관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반딧불이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작년에 '횡단자캠프'에서 어떤 분이 점을 연결해 선이 되고, 그게 면이 된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사이공간>도 마찬가지로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을 만들면 그게 문화도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도 문화를 향유하고 직접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걸 <사이공간>으로 알리고 싶어요. 다른 도서관도 가 보며 사람들이 선으로 연결되면 재밌겠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많은 상상을 하고 모임을 하고, 참가자가 기획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꿈꿔요.

나와 공간을 단어로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제 장점이자 단점은 포용력이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장애인 프로그램도 하며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도 하고 싶어요. 이용자도 저도 이 공간에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끌벅적한 자유분방함이 이 도서관의 특징이자 제 특징이에요.

인터뷰이 한진희
인터뷰어 글 사진 강세인
편집 박예은 이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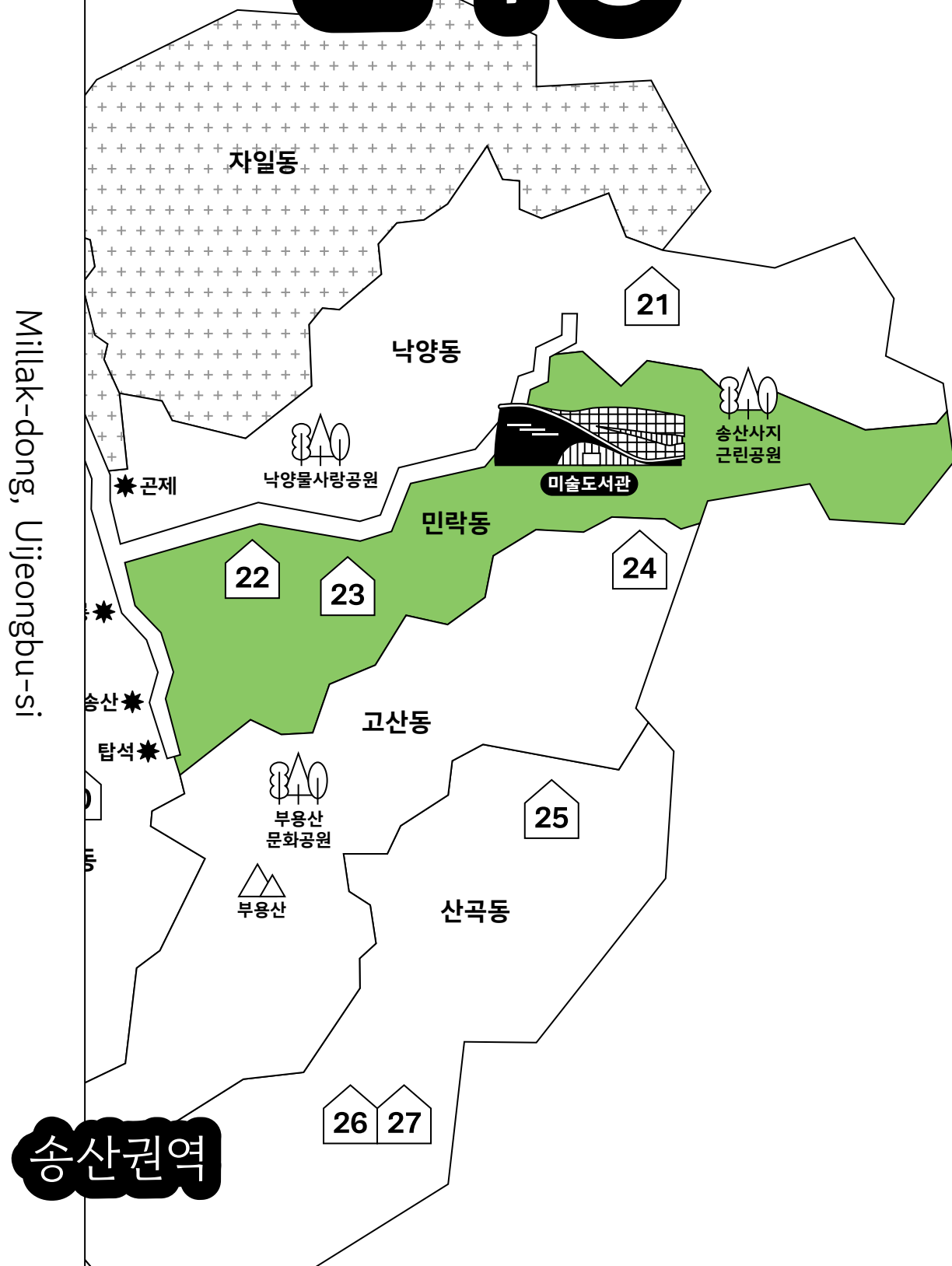


언제든 어떤 모습이든지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주인장 한진희

민락동

Millak-dong, Uijeongbu-si



민락동은 의정부의 신도심 중에서도 변화한 동네입니다. 주말마다 대형 마트로 들어가는 길이 짹짹 막히고, 대형 상가에는 옷 가게, 영화관, 외식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경할 거리가 많은 미술도서관과 산책하기 좋은 송산사지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모여 있는 동네 민락동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민락동의 <사이공간>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간 주인장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도시에는 공간들이 넘쳐나지만, 모든 존재를 환영하는 공간은 드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공간을 활짝 열어 둘 수 있는 것은, 이웃들에 대한 단단한 신뢰와 공간에 쌓이는 관계에 대한 애정일 것입니다. 민락동의 <사이공간>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 환대의 놀이 공간

#네트워크

#공감

#문화놀이광장

웰니스메이트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웰니스메이트'는 '웰빙'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이름이다. 양인영 주인장은 2012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보드게임 강사를 배출하고 있고, 강사들의 스터디 공간과 보드게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민락동에 이 공간을 열었다. 이 공간은 악기 연주나 네일아트 등의 동아리 활동 장소와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등의 장소로도 활용되며 그야말로 '공유공간'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인 만큼, 공간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웰니스메이트'에 모이고 있다.





유인엽 주인장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곳에서 즐겁게 놀고 편히 쉬었다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간을 만들었죠. 2012년에 강사들의 스터디를 위해 작은 오피스텔 공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게임 문화 교실'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저는 의정부가 고향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자랐으니 아이들의 고향이죠. 아이들과 아이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의정부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2011년부터 게임 관련 프리랜서 활동을 했는데 강사비나 활동비만으로는 움직이기 열악했고, 사람들이 생활문화를 즐길 공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도구로 사람들을 모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보드게임을 그냥 게임으로만 생각하고 놀이문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놀이문화가 옛날부터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놀이문화를 경험하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공간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주인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24시간 365일 항상 공간을 열어두고 누구나 들어와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물건을 소중히 하고 사용한 것을 스스로 치우고 가는 거죠. 언젠가 아이들이 깜깜한 계단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이 공간을 알려주며 여기 와서 쉬도록 했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놀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간다면 언제나 이곳을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믿으며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니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하고 가서 공간이 훨씬 깔끔해지기도 했죠. 그 아이들이 지금 군대에 갔는데 편지도 써 주고 휴가를 나오면 가장 먼저 찾아와 줘서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건 주인의식이예요.



공간을 완전히 개방하면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마냥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음료 같은 걸 나눠주며 돈을 내라는 말을 안 하다 보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어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곳이 음료를 판매해서 업종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영업 제한 업종이 됐죠. 거의 3년 동안 수익 없이 돈이 계속 나가다 보니 지금은 사람들이 와도 음료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운영비가 부담스러워서 직원을 못 쓰고 있기도 해요. 제가 외부에서 활동하며 공간을 홍보해야 수익 구조가 생기는데 인력이 없어서 여기에 머무르다 보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어요.



반면에 즐거운 기억도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공간이 짝 차서 바깥에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던 크리스마스이브가 생각나요. 코로나 전이라 점심부터 새벽 2시까지 사람이 많이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도 청년들로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손님들이 맥주를 팔면 안 되냐고 묻기도 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곳에 남아 있던 청년들에게 맥주를 사주고 얘기하며 놀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공간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시는지 궁금해요.

방음이 되니까 벽면에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작은 공연을 하고 싶어요. 적은 인원이 모여 식사하고 공연도 보고 하는 거죠. 공연 출연진 섭외가 힘들겠지만, 관객 모집은 어렵지 않아요. 장암동, 신곡동, 금오동 그 모든 곳에 <사이공간> 공연팀을 만들고 여러 공간을 방문하며 공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사람들이 오길 바라요. 공간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길 원하고 있죠. 중장년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청년과 달리 중장년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직접 알려드리는 게 더 좋거든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웰니스메이트’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공간의 주인장들은 저처럼 각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이공간> 사업을
주최하는 의정부문화재단과 공간 주인장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웰니스메이트’ 공간을 재정비해서
음악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일일 카페나 찻집
처럼 먹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고 싶어요.

<사이공간>을 통해 알게 된 ‘스르르’
라는 공간에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나는 분께 이야기를 해줬죠.
이렇게 의정부 곳곳에 좋은 공간이 있다고 알려
주고, 또 직접 찾아가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누구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와서

편히 쉬었다 가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어요.

주인장 양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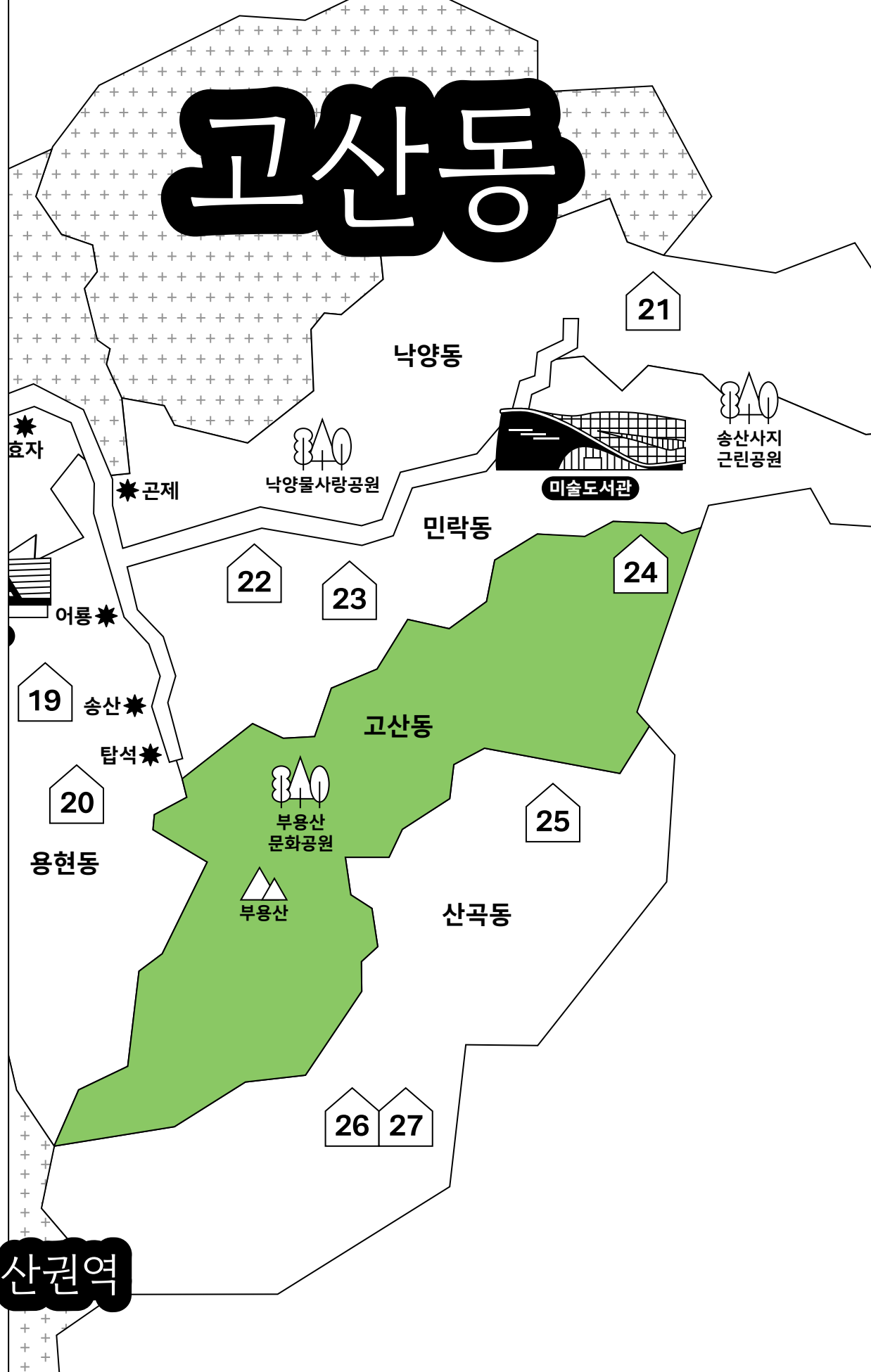
인터뷰이 양인영

인터뷰어 글 사진 강세인

편집 박예은 이규빈

고산동

Gosan-dong, Uijeongbu-si



송산권역

고산동은 최근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들어서며 '신도시'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 동네입니다. 잘 닦여진 도로, 공사 현장, 비닐하우스, 농지가 함께 있는 풍경이 눈에 띕니다. 고산동은 의정부의 별명인 '군사 도시'의 서사를 간직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수락산자락 계곡 일대에, 미군 부대인 '캠프 스탠리'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기지촌 마을 '빼빼마을'이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거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동네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모습이 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고산동에 쌓인 역사적 맥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에 어떤 것이 쌓여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쌓아가고 싶은지 탐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고산동의 <사이공간>도 공간만의 이야기를 겹겹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환영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는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데요, 언젠가 나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습니다. 공간 운영이 수월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즐거운 추억이 한 겹 한 겹 쌓여가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공간 운영의 동력이 된다는 고산동의 <사이공간>을 소개합니다.

내더휴(休) 작은도서관



‘내더휴(休)작은도서관’은 고산동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은 작은도서관이다. 유한나 주인장은 이 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도서관 이름이 고민이었다. 그러다 아파트 이름 중에 ‘휴(休)’라는 글자가 마음에 들었고, 이 공간 자체가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간이었으면 해서 작은 도서관의 이름을 ‘더 휴’라고 지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책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주인장은, 이 공간이 좋은 이웃들도 많이 만나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휴식하거나 즐거운 일을 벌일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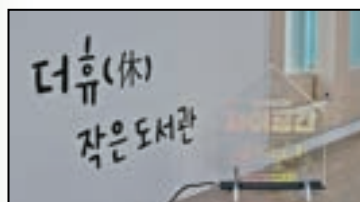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한나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을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법과 상관없는 아파트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간은 있는데 운영되지 않은 채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LH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죠. 처음 7개월 동안 급여와 책, 전산 시스템, 전자기기 등을 지원받고 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원이 끝나고 나니 도서관이 방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장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후에는 몇 달 동안 봉사직으로 했어요.

공간을 운영하는 동안 도서관이 좋아서 오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자원봉사로 많이 도와주세요. 봉사자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아이들 돌봄을 운영해요. 아무래도 도서관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나요?

유한나 이곳에 방문한 아이들이 즐겁고 편하게 뛰어놀았으면 해요. 그래서 공간 배치를 다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 동안 방치됐으니 거미줄도 많고 벌레도 죽어있고 그랬어요. 페인트도 얼룩덜룩하고요. 그래서 직접 책도 한 권씩 찾아 등록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하면서 공간에 애정을 많이 쏟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도 편안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게 배치를 신경 썼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요. 애증의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요?(웃음)



직접 공간을 조성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유한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서 책은 양쪽으로만 있고, 사람들이 가운데 모여 앉을 수 있게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도 아이와 분리되더라도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유한나 내 집이 제일 편해, 이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공간도 들어오면 어느 한 곳이 제일 좋거나 하지 않고 공간 자체가 내 집처럼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 꼽자면 어린이 도서관 계단 끝부분에 혼자 볼 끄고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혼자서 쉬고 싶거나 조용히 생각하고 싶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곤 해요. 나만의 쉬는 공간이랄까요?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닌데, 지원이 없으니 운영하며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유한나 공간만 달랑 있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말기는 거라서 공간은 되게 큰데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죠. 도서관은 책이 있어야 하는데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새로 나온 책 없냐고 물어보곤 하는데, 사비로 책을 구매하는 것도 한정적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읽고 싶은 책이 있어 공간에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요즘 책이 아무리 저렴해도 만 오천 원 정도는 하니까요.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유한나 돌봄공동체랑 협력관계를 맺어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60%는 어린이 프로그램이에요. 요리, 책, 한국사, 미술 등 다양하게 수업을 진행해요. 성인 프로그램은 특강으로 원예, 라탄 공예 수업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강사비랑 재료비는 참가자들이 부담해요. 공간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전혀 없어요.

요즘 느끼는 문제점이거든요. 도서관을 위한 돈을 남겨둬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도서관이 돈을 벌려고 하는 공간이 아니고, 제 인건비를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익을 못 남기겠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자금난에 시달려서 허덕이기도 해요.(웃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유한나 아이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로 인해서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돌봄 공간도 같이 있으니 아빠들, 할머니들도 오시고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오셨다가 할머니 혼자 오셔서 책을 빌려 가시기도 해요. 단지 내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오셔서 책 빌려 가지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와요.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시더라고요. <사이공간>에 선정되면서 저녁 시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도서관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잖아요.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주 연령층은 3-40대 맞벌이 엄마, 아빠들인데 그분들은 퇴근 후 쉬면서 뭔가를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유한나 개인적인 목표는 도에서 하는 도서관 평가가 있는데, 평가를 잘 받으면 1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 게 목표예요. 도서관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모든 게 다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동네잔치나 생신도 같이 하고, 장례도 전부 마을 회관에서 같이 했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거든요. 'LH더휴작은도서관'이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거라도 추억이 될 만한 곳, 기억될 만한 장소였으면 해요.

문송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이곳에 방문해 놀기도 하고 맘껏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으면 해요.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유한나 저에게 이곳은 애증의 공간이에요. 아픈 손가락 같은 곳이지요. 다들 일 벌이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벌여야 뭔가가 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라서 이것저것 계속 시도하게 돼요. 돌아보면 일이 너무 많고 힘든데, 해놓고 보면 되게 뿌듯하고요.(웃음)

문송이 저는 여기가 휴게소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함께 와서 쉬고요. 그러다 자원 봉사 겸 공동체를 시작하며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 됐어요. 여기 오면 아이들끼리 난리 법석을 치고 떠들고, 노는 게 너무 좋아보여요. 더 많은 아이가 와서 놀고 쉬고 책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유한나 문송이

인터뷰어 글 김우락

사진 김우락 박예은

편집 박예은 이규빈



도서관에서 꼭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가볍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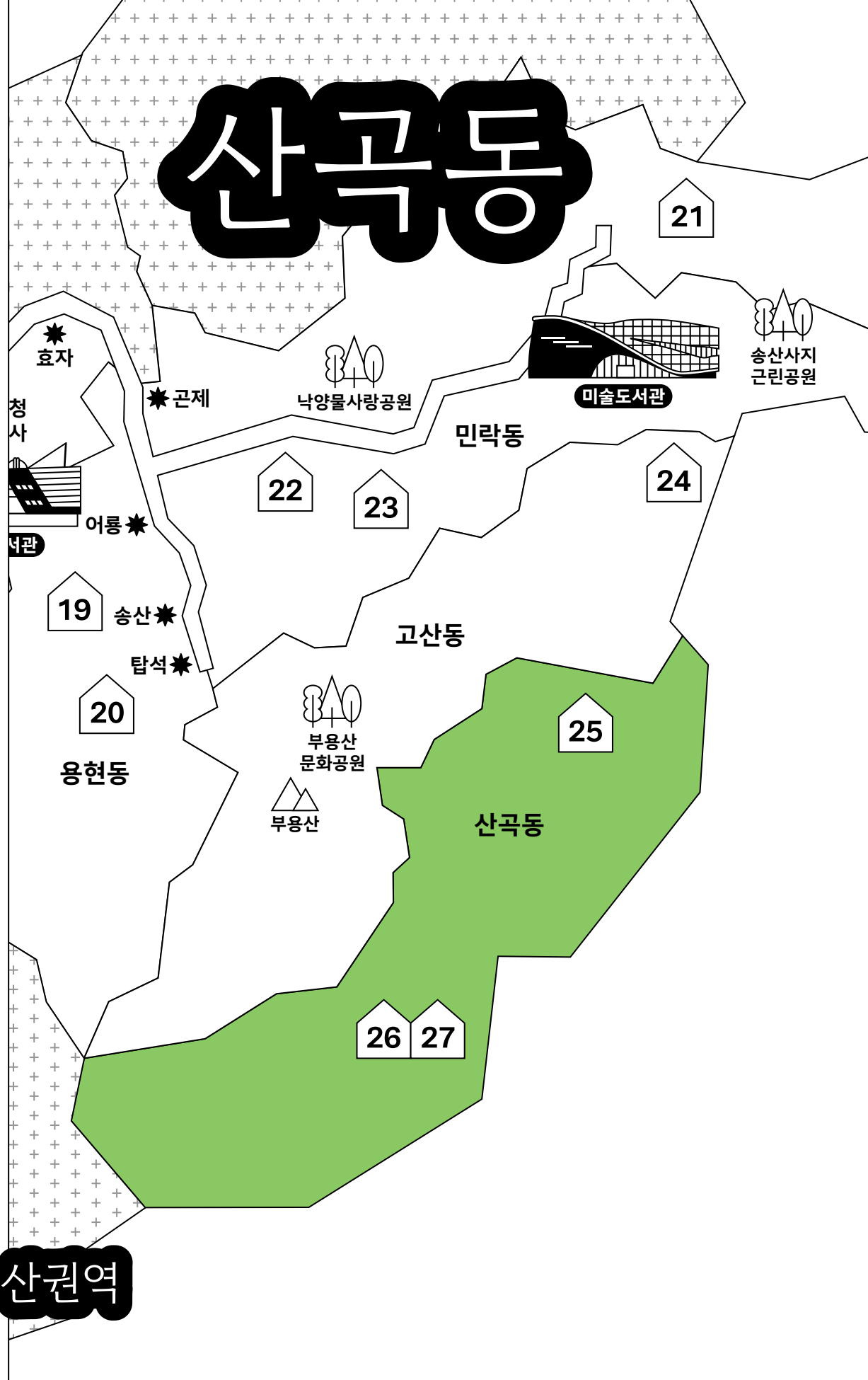
실무자 문송이

이 공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직 방문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한 번만 와보세요.”라고 말하고 싶고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도서관에 재미를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책이 많으니까 책 보러 오셔도 좋아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놀러 오세요.

주인장 유한나

산곡동

Sangok-dong, Uijeongbu-si



산곡동은 의정부의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수락산 깊은 곳까지 포함하고 있지요. 수락산자락의 폭포에서 흘러 내려온 계곡 줄기를 따라 쪽 이어지는 마을.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 산곡동에 있습니다.

마을의 풍경과 역사는 각각 다르지만,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에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꼭 닮은 두 곳의 <사이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뜻 보면 크게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공간을 매개로 이웃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부지런한 움직임만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의정부 끝자락에 있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희미하지 않은 산곡동의 <사이공간>을 소개합니다.

봄별작은도서관

‘봄별작은도서관’은 2021년 10월에 개관했다. 조진수 주인장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던 이곳에 도서관을 열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처음 생긴 것이다. 경로당 말고는 이런 공간이 하나 밖에 없기에, ‘봄별작은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 활동을 하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진수
주인장

공간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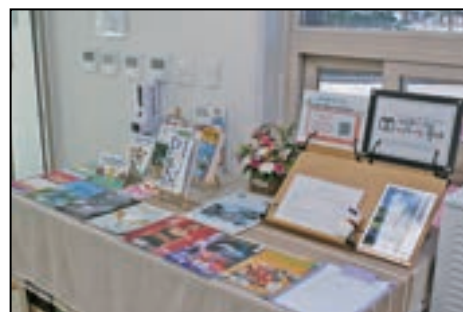
공간의 편안함과 친숙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는 리모델링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거든요. 옆에 다목적실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 공간보다 넓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올해 12월쯤에 그쪽으로 옮길 것 같아요. 지금 공간 가운데 세워진 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옮기는 공간은 탁 트인 곳이거든요. 벽이 없는 진정한 '사이공간'으로 거듭나는 거죠.(웃음)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LH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했어요. 거기서 지원을 받아 초기자본이 생겼고, 인력을 지원받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 공간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에 마을문화 지원사업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니 도서관 운영을 계속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봄별작은도서관'의 관장이 되었어요. 공동체, 문화, 도서관 쪽으로는 아예 모르고 살았는데 관장직을 맡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공익, 문화, 기후에도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또 다른 재미를 알게 됐죠.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공간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취향을 배제했어요. 이곳은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 아닌 도서관이다 보니 나에게 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오시는 분들에게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고요. 누구나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 자리를 좋아해요. 햇빛이 짝 들어오거든요. 또 제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도 좋아해요. 여기 앉으면 주변에 책들이 보이는데, 직접 책을 읽지 않아도 책들이 눈앞에 보이는 게 좋거든요.

운영의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껴요. 주민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주민분들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참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는 기대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실망하기도 하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갑자기 참석을 안 하시거나 그럴 때 공간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문화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요?

요리, 댄스, 필라테스, 원예, 과학실험, 코딩, 드론 교육, 악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참가비는 안 받거나 받아도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먼저 무료로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 모임도 많이 해요. 아파트 주민 회의도 하고 동아리, 소모임을 하기도 해요. 또 코로나 때는 어디 모여서 얘기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주민분들께서 이곳을 많이 빌리시기도 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열었어요. 너무 어린 영아들 상대로 처음 하는 거라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공연을 시작하니깐 아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공연은 아기들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공연이잖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강사님이 아기들에게 예절을 알려주기도 하고, 아기들이 직접 공연을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요.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눈에 선해요. 공연 이후엔 아기들이 부모님들이랑 산책하다가 "도서관 언니 만나러 갈까?" 하면 신나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공간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시나요?

다양하게 오시는데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성인 분들도 꽤 오시는 것 같아요. 중, 고등학생들은 바쁘다 보니 잘 안 오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해요. 아이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문화를 경험했으면 하거든요. 코인노래방이나 PC방 말고, 이곳에서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봄별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아침에는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오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책도 읽으면서 놀아도 되고요. 중, 고등학생들은 와서 편하게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성인들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단어에 비유하자면 무엇인가요?

우리 공간은 산곡동의 문화 활동이 일어나는 곳의 중심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가 크지 않지만, 정말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산곡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이곳에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해요.

인터뷰이 조진수
 인터뷰어 글 김우락
 사진 김우락 박예은
 편집 박예은 이규빈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놀이터 같고, 사랑방 같고,
 아무 때나 와서 놀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많이들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인장 조진수

담다헌

검은돌마을에 있는 한식문화공간 ‘담다헌’에서는 누구나 한식을 만들며 전통 먹거리와 농산물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다. 박경애 주인장은 한식 문화와 함께 음식의 원재료를 아는 것,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건강한 생활은 밥을 잘 먹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를 폭넓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박경애 주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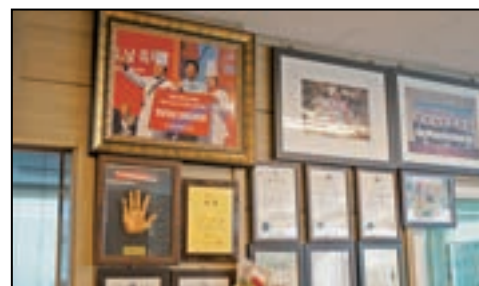
공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댁이 있는 곳이라 여기에 자리 잡게 됐죠. 아파트에서만 자라서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던 아이들이 와서 식물이 자라는 것도 보고, 도시 농업을 하기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곳 검은돌마을에 ‘담다헌’이 생기면서 어린이도 마을에 많이 방문하며 생기가 넘치게 됐어요. 마을회관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버스가 들어오면 ‘담다헌에서 뭘 하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이야깃거리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마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바람이 공간에 반영된 점이 있나요?

‘담다헌’은 저의 60년 이상 세월을 담은 결과이자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는 가치를 담은 공간이에요. 잘 먹고 잘살아 온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결과물은 크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이 공간에 있는 게 즐거우니 누가 오든 안 오든 계속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사람들이 오면 그걸 나누는 게 좋아요. 손주에게 항상 ‘할머니가 좋아하는 건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이공간> 사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밥의 인문학’이에요. 밥은 삶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밥을 잘 먹고 건강해야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히 맺을 수 있죠. ‘담다헌’에서 그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도 ‘식문화’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식문화는 모든 문화를 주도해요. 동양과 서양은 먹는 것이 다르니 문화도 다른 거예요. 요즘은 서양에서도 동양의 음식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음식을 잘 몰라요. 내 것을 알고 남의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말이에요. 국이나 찌개에 김치, 멸치볶음, 나물을 먹는 가정식도 점점 멀어지니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와 문화는 더불어 가는 것이니 우리의 식문화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해요.

일제 강점기에 쌀을 많이 빼앗기고, 6.25전쟁이 나면서 먹거리가 없어졌을 때 UN에서 식량 원조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외국 아이들이 덩치도 크고 힘이 센 이유가 밀가루를 먹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옛날에는 떡을 만들 때도 가래떡에 밀가루를 안 넣으면 다 잡혀갔어요. 쌀 소비가 늘어가고 할 때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거쳤고 서양의 피자과 햄버거 같은 음식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음식이 잘 발전하지 못했지요. 학교 교육이나 TV에는 서양 음식을 많이 다루고, 빵을 만드는 것만 멋있다고 생각하니 한식을 덜 먹는 거예요. 국가 자격증도 제과제빵 기능사보다 떡 제조 기능사가 나중에 생긴 것도 그래요.

공간을 운영하며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공간 유지가 어렵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에도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니 제가 좋아하는 이 공간에 사람들이 오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식문화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의정부 미군 부대에 있던 미군 가족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의사회,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평창 올림픽을 위해 한국에 온 아프리카 선수 등 ‘담다헌’에 외국인이 많이 왔어요. 한식을 만들어 보고 ‘이런 맛도 있구나!’ 하며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외국인이 발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러 가면 김치를 안 먹는다며 만든 것을 안 가져간다는 학생이 있어요. 만드는 걸 본 적이 없으니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져가겠다고 학생이 같이 만든 김치를 한 번 먹어 보고는 가져가더라고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김치나 떡은 만드는 과정과 재료가 복잡하니까 다들 간단한 체험용 키트를 써요.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대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복잡한 과정까지 다 해요.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며 김치나 고추장이 만들기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며칠 전에 온 가족도 ‘담다헌’에서 만든 고추장을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파는 고추장과 만든 것을 비교해 보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먹어보더니 직접 만든 고추장에서 깊은 맛이 난다고 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깊은 맛을 아는 거죠.

더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문화 활동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함께 교육하고 싶어요. 코로나 전에는 가족과 함께 한식 밥상을 한 상 차리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밥만 해 주면 그 자리에서 전도 부치고 멸치도 볶고, 나물도 하고, 불고기전골도 하고, 잡채도 만들며 한 상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하고 싶어요. 요즘엔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많지 않고, 모이면 보통 외식을 하죠. 밖에서 치킨 같은 튀김 음식만 먹지 말고 여기에 가족들과 와서 역할을 나눠 음식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먹고 남은 음식은 싸 가서 저녁에 먹으면 되고요. 무조건 외식을 하기보다 밥에 된장찌개, 김치를 자주 먹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요.



문화도시 의정부의
'사이공간'으로서 '담다헌'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사이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고 생각했어요. '담다헌'에서는 '밥의 인문학' 프로젝트를 하니까 밥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며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밥은 우리 삶 자체이고 힘의 원천이에요. 밥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힘이 되어 주는 거죠.

궁중 음식 같은 어려운 느낌이 아닌, 김치볶음밥이나 참치김치찌개 같이 집에서 하는 요리처럼 접근성이 좋아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가족과 오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요. 내년에도 <사이공간>을 한다면 시리즈로 '김치의 인문학'을 하고 싶어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김치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하며 식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터뷰이 박경애
인터뷰어 글 사진 강세인
편집 박예은 이규빈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묻고 싶어요.
어린이에게는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손주한테 말하는 것처럼요.
가장 좋은 말을 손주한테 해 주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소중한 사람이 먹는 걸 만든다고
생각하며 정성을 담는 것처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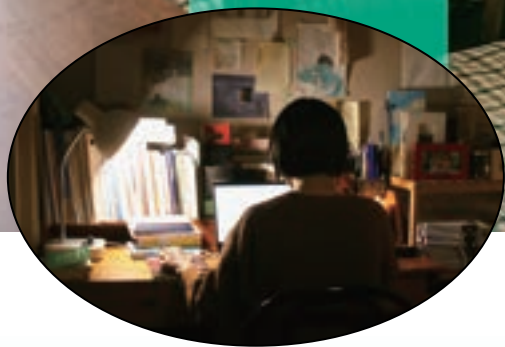
주인장 박경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



관계 맺기와 장소성에 대하여



안은성

로컬사무소 공공공 대표(현), 마을북카페 나무 대표(전)

도시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압축된 공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대중으로 살아가지만, 밀집된 인구로 인해 끊임없이 도시 안에서 타인을 마주한다. 낯선 사람들과 같은 버스를 타고, 좁은 인도를 걷다가 모르는 이의 어깨를 부딪힌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를 마주친다 해도 타자와의 사회적 거리는 물리적 접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¹⁾ 한 공간에 가까이 머문다고 해도 서로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사이'도 아닌 것이다.

도시의 높은 인구밀도는 우리를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²⁾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아는 척 할 필요도,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다시 마주칠 일이 없는 관계니까.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불러 온 촌락 공동체의 붕괴는 친족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강력한 연대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켰고, 대도시는 파편화된 개인주의의 요체가 되었다. 도시가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익명적 군중성이라는 속성 덕분이다. 강력한 공동체나 조직의 소속이 없는 도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려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형태들이 태어난 것이다.

도시 공간의 유형이 갈수록 다원화되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제는 공공 기관에서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공공 기관뿐 아니라 거리, 공원, 광장과 같은 다양한 공적 공간에서 버스킹을 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적 공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적 공간과 닫힌 공간으로서의 사적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유하고 존재하는 것을 '사이 공간'³⁾ *in-between space*이라고 부른다.³⁾

1)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공간적으로 접촉은 하지만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만큼 우리가 더 멀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간주하면서 물리적 공간 내의 근접보다는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으로 근접한 구성원들끼리 더 가까운 경향을 가진다고 보았다.

마르쿠스 슈뢰르(Markus Schroer), 정인모·배정희 역(2010),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pp.294~105

2) 짐멜은 대도시인들이 소소한 일들과 편견에 얽매이는 소도시인에 비해 '자유롭다'고 말했다. 짐멜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외롭고 쓸쓸하게 느끼는 곳이 다름아닌 대도시의 혼잡 속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유의 이면일 따름이다."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김덕영·윤미애 역(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pp.45~46

3) 본래 '사이 공간'은 건축학에서 '도시 환경에서 두 개 이상의 건물 사이에 생겨나는 공간'을 일컬어왔다. 하지만 사회학계에서는 '사이 공간'의 의미를 단순히 물리적 요소로서 사물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연결과 네트워크의 매개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안현정. (2011). 도시 환경에 있어서 사이공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1), 335-348.

인간의 행위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던 아렌트에 따르면, 세계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분리시키기도 하는 ‘사이’다.⁴⁾ 사물로서 세계 속에 존재하는 공간 역시 그렇다. 때에 따라선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타자와 접촉하고 관계를 잇게 만든다. 문화도시 의정부가 다양한 문화를 매개하는 문화공유공간 지원 사업을 설계하면서 ‘사이공간’이라고 이름 붙인 것 역시 문화의 향유를 넘어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의 지향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이공간’의 의도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간운영자들이 밝힌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밖에서 ‘이웃들과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그림정원화실] 운영자의 말은⁵⁾, 이웃을 연결하고 공간에서의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길 바라는 ‘사이공간’ 사업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중요하고 이런 곳이 구심점’이라고 밝힌 [반딧불이 작은도서관]과⁶⁾ ‘공간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길 바랐다는 [우리동네 협동조합] 운영자의 소신에서도 드러난다.⁷⁾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정부 문화도시 공유공간 사업에 참여중인 두 공간의 사례는, 공간이 어떻게 지역과 관계 맺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준다. 처음 공간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자그마하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태권도 초록 띠도 따기 힘들어서 울던 아이가 어느새 검정 띠를 눈앞에 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성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좋다는 [동아그림] 운영자의 이야기는⁸⁾, 골목과 동네에 자리한 작은 공간들이 운영자뿐 아니라 그곳을 터전으로 삼고 거주하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⁹⁾ 동네에 자신의 성장을 지켜보고 흐뭇해하는 어른이 있는 곳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 외에도 마을에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공간을 기억하게 된다. 청소년 시절 애용하던 [웰니스메이트]를 잊지 않고 군복무 중에도 편지를 쓰고 휴가 때 들르는 청년의 모습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¹⁰⁾

공간과 사람을 잇는 놀라운 힘은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형성되기도 하고, 공간에서의 문화적 경험에 의해 생성되기도 한다. [위아울 라운지] 공간 운영자는 다른 ‘공간에서의 경험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스스로 공간을 열었다고 말한다.¹¹⁾ 이렇게 공간이 준 특별한 느낌과 정서는 물리적 요소로 구성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주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여기게 된다.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 즉 ‘장소성’은 그의 말처럼 ‘공간에서 느낀 임팩트가 클수록 공간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드워드 렐프는 “인간이 의미 있는 장소와 관련 맺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욕구(Edward Relph, 2005)”라고 설명하면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한 바 있다.¹²⁾ 그에 따르면 장소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장소를 경험하는 이의 공간적 위치다. 해당 장소를 내부인으로서 경험하는가, 외부인으로서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장소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이 장소의 내부와 깊이 연결되면 그와 장소와의 동일시가 강해진다. 이러한 정서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렐프가 강조한 장소와의 강한 연결성을 ‘사이공간’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내부인인 공간 운영자와 외부인인 이용자가 어떻게 관계 맺으면 좋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공간에 방문해서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참여하고 떠나는 외부인은 그 공간이나 운영자와 깊은 상호작용을 할 겨를이 없다. 지속적 관계 맺기 없이 짧은 시간동안 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장소 정체성을 형성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외부인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자와 소통하면서 내부와 깊이 연결되는 사람이 공간에 대해 특별한 친밀함과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관계 맺기를 통해 개인이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만든다면, 장소 역시 다른 곳과 차별되는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공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공간은 “그곳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곳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장소가” 된다(Yi-Fu Tuan).¹³⁾ 우리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어떤 장소를 찾아 가거나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4)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이진우·태정호 역(2008), 『인간의 조건』, 한길사, pp.102~105

5) 정지혜, [그림정원화실] 운영자

6) 한진희, [반딧불이작은도서관] 운영자

7) 최혜영, [우리동네협동조합] 운영자

8) 임동아, [동아그림] 운영자

9) 거리를 지켜보는 눈 *eyes on the street*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는 제인 제이콥스의 주장을 상기해보자.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 1961, 유강은 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그린비, pp.53~87 참조.

10) 양인영, [웰니스메이트] 운영자

11) 이성민, [위아울라운지] 운영자

12) 에드워드 렐프 *Edward Relph*, 1976,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p.116~128, p.298 참조.

13) 아-푸 투안 *Yi-Fu Tuan*, 1977, 윤영호·김미선 역. (2020) 『공간과 장소』, 사이, p.19 참조.

어린 시절 경험한 장소에 대한 추억은 어떻게 개인의 내면과 현실세계에 가 닿을까. 아이들에게 '기억될만한 장소'¹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한 어느 운영자의 마음은, 마을회관에서의 동네잔치와 의례를 추억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어릴 적 놀러 다닌 공간을 어른이 되어서도 방문하는 청년들은 또 어떨까. 그들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던 공간에서 사회와 어른에 대한 신뢰를 배웠을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친밀한 보살핌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다.

친밀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이 비단 아이들 뿐은 아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각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어른들 역시 상호 지지와 응원을 필요로 한다. 타자를 만나 서로의 삶을 토닥이는 일은 삶의 토대인 다양한 장소들에서 이루어진다. 외부인으로서는 첫 발을 들일 때 낯설고 추상적이던 공간은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깊어질수록 의미 있는 구체적 장소로 변화해간다. 장소가 만들어진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팀 크레스웰 *Tim Cresswell*의 해석처럼, 어떤 공간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은 결국 공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과정이다.¹⁵⁾

일찍이 미셸 푸코는 현 시대가 공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시간을 통해 길게 전개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 지점을 연결하고 그 실타래를 교차시키는' 연결망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¹⁶⁾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거대한 시간의 흐름에 내맡겨진 삶이 아닌, 개인과 개인을 잇는 수많은 공간의 교차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의정부의 '사이 공간'이 도시를 살아가는 익명의 개인들을 교차하게 만드는 연결망 역할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소통의 공간'¹⁷⁾, '사랑방 같은 공간'¹⁸⁾, '다양한 문화 활동을 연결'¹⁹⁾하는 공간으로 나아가려는 공간 운영자들의 바람은, 앞으로 '사이공간'이 어떻게 도시와 사람들을 연결하며 확장해나갈지 기대하도록 만든다. 공간을 소비하는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연결되고' '우리가 되는'²⁰⁾ 공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드는'²¹⁾ 공간이 많아진다면, 이름을 모르는 당신과 나 사이도 어느 공간에선가 연결되지 않을까.

14) 유한나, (LH더휴작은도서관) 운영자

15) 팀 크레스웰 *Tim Cresswell*, 2004, 심승희 역. (2012)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 장소』, 시그마프레스, 역자 서문ix 참조.

16)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1994, 이상길 역. (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p.41 참조.

17) 김예스더, (보우 스튜디오) 공간 운영자

18) 이미경, (화차마루) 공간 운영자

19) 강은실, (산야요가) 공간 운영자

20) 고정훈, (스르크) 공간 운영자

21) 박경애, (담다현) 공간 운영자

글쓴이. 안은성

지역에서 20여 년간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문화기획의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해 왔다. 도시공간과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고, 모든 활동의 뿌리는 공간이라고 믿고 있다. 도시사회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연결해 보는 작업을 시도 중이다.

로컬사무소 공공공 대표(현)
의정부 문화도시 시민협력 PM(전)
커뮤니티 공간 '마을북카페 나무' 대표(전)
로컬 매거진 UP 편집장(전)

로컬사무소 공공공

용현동 다세대주택에 터를 잡은 로컬사무소 공공공은, '거실이나 방을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사적 공간의 공적 공유'를 실험하는 공간이다. 주거가 가능한 집이라는 물리적 조건을 갖고 평소에는 운영자의 작업실과 일터로서 기능하고, 필요시 다양한 모임에 공간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북카페 나무



마을북카페 나무는 2013년 신곡1동 의정부초등학교 앞에 설립된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다. 55명의 출자자가 공간 설립과 운영에 동참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더불어 17개의 소모임이 운영되며 많은 주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였다. 2021년 12월, 장암3구역 재개발로 문을 닫았다.

마을북카페 나무 아카이브

- 의정부 문화도시 거점공간 사업 '공간과 커뮤니티의 발견'
- 안은성, 「민간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 경기도 의정부시 '마을북카페 나무'의 변천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카카오 브런치 (33명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 오마이 뉴스 연재 시리즈 (마을카페 '나무'의 6년)

카카오
브런치



오마이 뉴스
연재 시리즈



2023 **사이;공간** 매거진 VOL.1

사이;공간

(magazine)

주최·주관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의정부시

사업명 2023 <나와 모두의 문화가게-사이공간>

발행일 2023년 11월 29일

발행처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제작발행 (주)로컬피스

기획/편집 박예은 이규빈

글 이규빈 강세인 김예겸 최예원 김우락 안은성 이예담

사진 이규빈 강세인 김예겸 최예원 김우락 박예은

디자인 박예은 @mulle.park

인터뷰이 하선진 이은아 한수진 정지혜 최혜영 김에스더

임동아 정문준 이성민 고정훈 박영희 하다연 윤병은

윤애경 홍정환 장미혜 여승현 강은실 이미경 한진희

양인영 유한나 문송이 조진수 박경애

(재)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전화 031) 850-5182 / 850-5123~4

홈페이지 cafe.naver.com/ccityujb

INSTA. KAKAO. YOUTUBE. @ccity_ujb

(주)로컬피스

이메일 archiving8154@gmail.com

INSTA @archiving81.54

ISBN 979-11-982014-1-6

본 책은 2023년 의정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사업 아카이빙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전체 또는 일부의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